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 成 佑

貧困兒童 學業成就志向性の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 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家庭을 대상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of Poverty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2 0 0 2年 1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 政 學 科

政 策 學 專 攻

車 正 姬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 成 佑

貧困兒童 學業成就志向性の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 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家庭을 대상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of Poverty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위 論文을 行政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 0 0 2年 1 2 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 政 學 科

政 策 學 專 攻

車 正 姬

車正姬의 行政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年 2月

審査委員長 한진수 

審査委員 정주택 

審査委員 이성복 

審査委員 이희진 

審査委員 이성우 

目 次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8
제3절 연구 방법	13
제2장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관한 문헌고찰	15
제1절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개관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배경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8
3.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	22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시행상의 문제점	25
제2절 빈곤계층의 교육환경 및 영향요인	30
1.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	30
2. 빈곤층의 아동 교육	34
제3절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41
1. 인간발달과 환경	41
2. 양육행동 이론	46
3. 스트레스	51
4. 빈곤문화이론	55
제3장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58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58
1. 연구모형	58
2. 가설의 설정	60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65
제3절 표본의 선정 및 자료의 방법	69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69
2. 자료분석방법	69
 제4장 실증분석의 결과와 해석	 71
제1절 기초적 분석 결과	71
제2절 가설검증	74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74
2. 가설검증의 결과 분석	77
3. 경로분석	83
 제5장 결론과 논의	 93
 參考文獻	 101
設 問 紙	123
Abstract	131

表 目 次

<표 1-1> 서울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8
<표 1-2> 관악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
<표 1-3>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0
<표 1-4> 서울시 결식아동실태(상위 5개구)	11
<표 1-5> 관악구 국민 기초생활 보호 수급자의 취업 현황	12
<표 2-1> 생활 보호법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비교	18
<표 2-2>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 기준	19
<표 2-3> 연도별 최저 생계비와 균등화지수	19
<표 2-4> 현금 급여 기준	21
<표 2-5> 연도별 생계비 지급대상자 추이	22
<표 2-6> 생애주기별 수급자 현황	22
<표 2-7> 생애주기별 남녀 수급자수와 총 인구대비 비율	23
<표 2-8> 수급자의 취업 현황	23
<표 2-9>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24
<표 2-10> 주거유형별 수급자 현황	24
<표 2-11> 수급자 가구의 소득규모별 현황	25
<표 2-12> 수급자 가구의 재산규모별 현황	25
<표 2-13> 최근 5년간 생활보호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26
<표 2-14> 부모의 교육 수준과 대학 진학률	31
<표 2-15> 부모의 직업에 따른 대학 진학률	32
<표 2-16>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직업	33
<표 3-1> 양육행동의 회전된 요인계수 행렬표	67

<표 3-2> 변수별 도구의 문항수, 가능한점수 범위, 내적합치도 계수 ...	68
<표 4-1> 연구대상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73
<표 4-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75
<표 4-3> 부모의 양육 행동	78
<표 4-4> 학업 성취 지향성 점수	78
<표 4-5>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지향성 차이 분석	79
<표 4-6> 학원 수강에 따른 학업성취지향성 차이 분석	82
<표 4-7> 우울감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86
<표 4-8> 우울감 관련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	88
<표 4-9> 자신감의 대한 경로분석 결과	90
<표 4-10> 자신감 관련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	91

그 립 목 차

<그림 1>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 모형	61
<그림 2>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대한 경로 모형	85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 목적

빈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심각성 때문에 모든 국가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과제로 간주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래서 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의 주된 관심 영역인 것은 당연하다.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가정학 등 사회과학과 그 인접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빈곤의 현실과 원인,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빈곤문제가 그만큼 개인의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복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질서 유지와 미래의 건강성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우리사회의 절대빈곤인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학자에 따라 다양한 통계가 제시되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사회의 절대빈곤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즉 빈곤선(poverty line)에 미치지 못 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인 빈곤율은 1960년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끼니를 걱정하던 수준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3-4%까지 감소했다.¹⁾ 하지만 IMF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1) 빈곤율 계산은 측정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다음은 한 연구자가 1991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10만원 이하인 가구원 및 가구의 비율을 절대적 빈곤으로, 도시가구 평균 가계지출의 50% 이하인 경우를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한 도시빈곤율 변화 추이이다

* 도시빈곤율 추이

(단위: %)

년도	가구원		가구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1967	83.0	18.2	85.3	21.4
1970	76.7	12.9	85.2	17.4
1975	83.5	16.6	85.9	20.1
1980	59.8	14.6	64.3	17.5
1985	52.8	19.3	57.4	22.8
1990	16.6	21.6	25.7	25.6
1995	5.2	19.0	7.5	19.0
1998	7.9	19.0	10.7	19.9

자료: 김동춘 외, 2000: 75.

과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통계청(2002)이 발표한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5년 전의 0.290에서 0.061포인트 높아진 0.351이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5분위배율도 5년 전 4.74에서 6.75로 2.01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중간 20% 가구의 소유점유율은 17.8%에서 16.6%로 하락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우리사회에서 중산층을 얹게 만들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IMF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나 사업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빈곤층에 편입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길거리를 헤매는 1만여명의 노숙자,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는 17만명의 결식아동, 10%대에 이른 실업률, 하루 4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도시빈민인구가 1997년 9%에서 19%로 증가(World Bank, 2001),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과 아동학대의 증가 및 가정해체, 자살 증가 등은 당시 경제위기가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우울한 언론 보도들이다(김동춘 외, 2000; 안병철 외, 2001; 정진성, 2001).

그러면 경제의 고속 성장과 빈곤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거나 심지어 더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물론 빈곤문제가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빈곤은 아주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문제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결함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악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합 처방 없이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난은 하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운명론을 위안삼아 마냥 방치

2) 최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1996년 1,027만원에서 2000년 913만원으로 114만원이 줄어든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4,866만원에서 6,164만원으로 오히려 1,298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두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3,839만원에서 5,251만원으로 37%나 증가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었고 부의 양극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해 둘 것인가? 본 논문은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정책들 중 하나가 빈곤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이라는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인적자본론자들은 저소득의 원인이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은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미래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여 인적자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chultz, 1963; Becker, 1964). 가난한 사람들도 제반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해 가난의 세습화를 막을 수 있다.³⁾ 인적자본론은 자기개발 투자 → 개인의 생산성 향상 → 임금 상승 → 빈곤 탈출의 선순환을 가정한다.

교육은 보통 사회이동의 통로로 이해된다. 비록 부모세대는 가난할지라도 교육을 통해 자식세대는 더 나은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진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나아가던 지난 60-80년대 고등교육을 받았던 가난한 농촌 출신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상층에 많이 진출한 것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강희돈, 1988; 김영모, 1982; 유팔무, 1981; 이상백·김채윤, 1966).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도회지에서 교육시켜야 했던 우리 부모세대들의 교육열이 교육이 직업, 수입,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변동의 격변기가 끝나가던 90년부터 빈곤층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이 초래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성원 특히 아버지의 교육 및 소득 정도, 그리고 직업에 따라 자식들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 현상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김영화·김병관, 1999; 설동훈, 1994; 송경원, 2001; 안치민, 1992).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3) 저소득층 아동들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도 소득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이론들도 많다.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강조하는 Thurow(1975)의 직무경쟁이론, 교육은 단지 잠재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력을 선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빈곤층이 고숙의 직종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발이론(Taubman & Wales, 1973), 빈민노동시장과 일반노동시장 사이에는 단단한 구조적인 분절(structural segmentation)이 존재하여 빈곤노동자(working poor)가 교육연한을 늘려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s)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노동시장분절론(Doeringer & Piore, 1971; 송호근, 2002) 등이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부유층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명문대 입시에서 하류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사회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계급 재생산의 기제라는 교육사회학자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최선헌, 2002; Bowles & Gintis, 1976; Wright & Perrone, 1977).

빈곤의 상속을 야기하는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시정하고 부의 대물림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빈민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들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고 다른 여러 가지 불리한 사회 환경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들을 학대하거나 아동들의 교육을 방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교육비의 규모가 아동의 학업 성취를 판가름하는 우리 상황에서 공교육비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층들에게 과외나 학원 수강은 그림의 떡이다. 빈곤층들은 또한 아동 교육에 불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재하는 모자·부자 가정이거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이 많으며,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취업이나 질병으로 아동들이 방치되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아동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게다가 90년대부터 밀어닥친 정보화와 세계화 물결이 빈곤층 아동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마르틴·슈만, 1997; 초스도프스키, 1998).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과 빈곤 아동들 사이의 교육기회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학력 수준이 낮은 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빈곤아동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빈곤아동들은 또한 세계화가 가져다준 부정적인 결과들을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 IMF 외환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빈곤층 가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많은 통계들이 외환 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연수나 유학에서도 빈곤층 아

동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반면 빈곤층 아동들은 해외 연수는커녕 동네 외국어 학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아버지의 실직이나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긴 부부 갈등으로 빈곤층의 이혼이나 별거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어머니들의 취업으로 빈곤층 아동들의 학대와 방임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에 일정 부분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가정해체가 빈곤층 아동들의 교육기회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부딪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빈곤아동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내어 아동복지를 위한 공공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T. H. Marshall이 고민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품위있는(decent) 시민으로 만드는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심의 초점은 빈곤 아동의 교육의 기회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사회·문화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빈곤 가정의 경제적 자원을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는 오랜 시간을 요하거나 불가능한 목표일는지 모른다. 따라서 장기적인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처방으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제 진짜 빈곤한 가정을 찾아내 도와주는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빈곤한 가정을 어떻게 빨리 자립·자활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탐구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빈곤 가정의 부모들이 소위 빈곤문화에 빠지지 않고 자식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떤 사회적 환경이 빈곤층 부모들의 아동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만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과 개입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의 아동 교육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 파악은 급여대상자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개입의 방향과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계와 영향의 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논문이 관심을 갖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 사회화의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 중 하나인 빈곤층 가정 어머니의 아동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은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가?

- 1-1. 빈곤층 어머니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녀 양육 방식은 무엇인가?
- 1-2. 빈곤층 아동이 학업성취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과 우월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빈곤층 가정의 환경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아동 양육행동 방식,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빈곤층 가정의 특성과 열악한 생활환경이 어떻게 아동의 우월감과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1. 빈곤층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2-2. 빈곤층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3. 빈곤층 어머니의 양육행동 방식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빈곤층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 아동 양육행동 방식,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3-1.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 양육행동과 학업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특히 교육급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동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취업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양육행동과 갖는 관계가 달라지는가?
- 3-2. 양육행동과 그 하위 차원들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빈곤층 아동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곤층 가정의 특성과 관련변인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각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들 중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갖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5> 빈곤층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그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다. 52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관악구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었다. 지금은 주택 재개발로 인해 중류층들이 구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빈민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서울시와 관악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표 1-1>, <표 1-2>와 같다. 2000년 현재 서울시의 81,691가구가 수급 대상이며 177,780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던 빈민들의 수가 1990년대에 들어와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3배정도 늘어났다. 이는 절대빈곤층이 갑자기 증가했기 보다는 국가의 공적부조 수여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표 1-1>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이

(단위: 명)

년도	계		거택보호		자활보호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991	53,174	154,784	13,012	17,671	40,162	137,113
1992	45,688	122,885	12,568	16,969	33,120	105,916
1993	42,536	107,840	11,781	15,424	30,755	92,416
1994	44,988	113,135	11,770	15,192	33,218	97,943
1995	43,587	104,403	12,613	16,362	30,974	88,041
1996	39,004	82,241	14,353	18,742	24,651	63,499
1997	39,098	78,513	15,670	20,493	23,428	58,020
1998	40,000	78,727	17,412	23,069	22,588	55,658
1999	36,986	68,853	18,383	24,121	18,603	44,732
2000	81,691	177,780¹	-	-	-	-

자료: 서울시 사회복지과

주) 1. 일반·시설·특례·조건부 수급자 포함.

본 연구의 대상인 관악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특례수급자에는 수급권자가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102가구 179명으로 가장 많고, 부양의무자가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2002년에 관악구는 4,398가구 9,027명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표 1-2> 관악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위: 명)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수	인원	가구	인원
1995	1,758	3,487	1,758	3,163	3	324	-	-
1996	1,436	2,697	1,436	2,361	3	336	-	-
1997	1,449	2,572	1,449	2,389	3	183	-	-
1998	1,595	2,833	1,595	2,665	3	218	-	-
1999	1,765	3,219	1,765	3,049	3	170	-	-
2000	4,570	10,296	4,341	9,735	4	236	229	325

자료: 관악구 복지사업과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측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2002년 3월 20일 현재 서울시에 있는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가장 많은 4개 구와 가장 적은 4개 구의 현황을 보면 <표 1-3>과 같다. 관악구는 노원구, 강서구 다음으로 많으며, 서울시 전체 수급자 가구의 5.45%에 해당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4개 구가 서울시 전체 수급자 가구의 31.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3>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명)

자치구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노원구	8,745	19,719	8,610	18,723	10	839	135	157
강서구	8,282	17,834	7,972	16,962	9	431	310	441
관악구	4,374	8,849	4,242	8,403	4	292	132	154
중랑구	3,987	7,807	3,872	7,568	2	115	115	124
중구	1,744	2,967	1,709	2,845	3	72	35	41
도봉구	1,556	2,905	1,542	2,795	1	94	14	16
종로구	1,509	3,422	1,437	2,111	5	1,232	72	79
서초구	1,331	2,581	1,319	2,415	2	153	12	13
서울시 총계	80,196	168,327	78,136	151,458	114	14,337	2,060	2,532

자료: 서울시 사회복지과, 기준일: 2002. 3. 20.

관악구에 빈곤층이 많다는 것은 결식아동 실태에서도 나타난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결식아동을 갖고 있다(<표 1-4> 참조). 서울시 전체 결식아동 5,333명의 9%에 해당하는 482명이 관악구에 거주하며, 그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생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이 아니다. 그들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316명이고 나머지는 조부모나 친척이 보살피고 있다. 그들이 제대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 하는 이유는 경제적 빈곤이 63.7%로 가장 많았다.⁴⁾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장애나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고, 여성이 많고, 15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학력, 저기술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관악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표 1-5>에 나

4) 결식사유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관악구 결식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든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 전체의 결식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편부모 가정인 반면, 관악구의 경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4> 서울시 결식아동실태(상위 5개구)

(단위: 명)

자치구	계	취학상태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급권자	수급권자 아님
관악구	482	42	239	163	38	188	294
성동구	377	24	211	100	42	276	101
강서구	368	9	157	130	72	302	66
구로구	364	16	196	111	41	177	187
송파구	336	7	167	104	58	188	148
서울시 전체	5,333	275	2,753	1,584	721	2,992	2,341

자료: <2002년 서울시 결식아동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02.

타나 있는 것처럼,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60명 중 74.65%인 7,510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2001년 전국 수급자의 74.7%가 비경제활동인구인 것과 거의 일치한다. 경제활동인구 중 상시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은 156명으로 6.12%에 불과하며, 60.98%가 임시직 및 일일고용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 가고 있다. 미취업자도 28.06%에 이른다.

이처럼 관악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전국의 수급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비록 전국적인 표본을 추출하지 않더라도 작은 표본으로 모집단 수급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이 갖고

	계	경제적 빈곤	보호자 질병/장애	부모 가출/행 불	저소득 맞벌이 가정	편부모 가정	알코올 중독	기타
서울시 전체	5,333	1,492	761	571	334	1,958	71	146
	100(%)	28.0	14.3	10.7	6.3	36.7	1.3	2.7
관악구	482	307	44	15	16	89	0	11
	100(%)	63.7	9.1	3.1	3.3	18.5	0.0	2.3

자료: <2002년 서울시 결식아동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02.7.11.

있는 특성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 또한 우리의 연구 주제인 교육문제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화로 인해 초등학생들을 가진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표 1-5> 관악구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의 취업 현황 (단위: 명)

년도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계	영세자영업 및 농수산업	상시고용	임시 및 일일고용	미취업	
1997	2,389	1,163	32	70	306	755	1,226
1998	2,665	1,107	25	21	436	625	1,558
1999	3,049	1,107	25	21	436	625	1,942
2000	10,060	2,550	123	156	1,555	716	7,510

자료: 관악구 복지사업과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관악구에 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가정을 조사한다. 학업성취지향성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수급자들 중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만이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선택된 가정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나 취업 여부 같은 수급자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양육행동 유형,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다. 설문지 조사는 연구자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훈련된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가 설문을 읽어주고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빈곤 가정의 일반적 특성 중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빈곤층 가정의 특성과 그것이 아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사회복지학과 교육사회학 문헌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교육비에 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통계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론적인 틀 구성은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사회학 분야에서 본 논문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참조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들은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인 관악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기초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부분(partial)회귀계수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한 다중공선성 여부도 알아 보았다. 빈곤 가정의 일반적 특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변인

들이 학업성취지향성에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를 계산하였다.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양육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의 하위 차원을 찾아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장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관한 문헌 고찰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60년대 중반부터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한국 국민들에게 2여년 동안 계속된 IMF 관리 체제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들 중의 하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여파로 우리 사회의 중간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비근로가구의 소득을 포함시킨 전체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1999년 1분기에 0.453으로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가 3분기에는 0.436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1997년 0.399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회복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외환 위기 이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2000년의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전망’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97년에 9%에 그쳤던 도시 빈민인구가 98년에는 그 배가 넘는 1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빈민인구란 하루 소득이 4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역시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상용근로자에 비해 일용·임시직 비중이 커지는 고용불안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는 있었지만 실업자 수가 여전히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가장 심각했다. 통계청이 2000년 2월 22일 발표한 ‘1월 중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20-29세와 15-19세의 실업률은 각각 9.8%, 18.9%로 전체 실업률 5.3%의 거의 2-4배에 이른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1999년

11월 첫 집계할 때 19만 명이었던 실망실업자는 2000년 1월에는 24만 명으로 늘었다. 불과 두 달 만에 5만 명이나 급증한 셈이다.

이처럼 빈곤층이 확대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되고 부유층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이 증폭되고 있었다. 거리에는 노숙자와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했는데도 부유층은 오히려 IMF 초기의 고금리와 경제회복기의 주가 폭등으로 전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인식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서민들에게는 경제회생을 위해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도 권력층과 부유층들은 사치스럽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되고 있었다. 사회적 긴장과 불안의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생산적 복지 이념의 실현이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 취약계층 즉 절대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둘째, 일할 수 있는 기회 확충과 역할에 따른 공정한 분배체계를 확립하고,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자원 배분체계와 복지제도를 개혁해나가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4대 보험의 제도적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법의 철저한 시행, 자활프로그램 확충,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의 말대로 생산적 복지란 ‘시장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뛰어 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복지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이었던 생활보호제도의 법률적 토대였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부도로 늘어난 빈곤계층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 부도로 양산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생활보호사업,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허선, 2000).

이런 상황에서 생활보호제도를 대치하여 새롭게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해보면, 자선적 급여에서 권리성 급여로의 전환, 인구학적 기준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폐지⁵⁾,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했던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단일화하여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 주거급여와 긴급급여의 신설 등 전일보한 사회부조제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명확하게 천명하여 당시까지 시혜적 차원에 머물렀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책무이자 시민의 권리(social right)로 명시한 것은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획기적인 측면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직자에게 수당을 주는 대신 국가가 제시하는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를 강조하는 것도 가난한 자가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국가의 도움에 안주하려는 소위 복지병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조치이다. 물론 많은 노동·시민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과 연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생산중심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복지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사회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을 계획대로 강력하게 실천한다면 이것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불한다. 만약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

<표 2-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구 분	생 활 보 호 법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재산 2,900만원(가구)	○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대 상 자 구 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 근로무능력자는 조건없이 급여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참가 조건부 급여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신 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수급자의 범위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보장단위는 가구(세대)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2002년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표 2-2>와 같으며 그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수급권자가 된다. 여기서 말한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자동차, 주택, 농지소유자 등에게는 별도의 제외기준이 적용된다.

<표 2-2>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 (단위: 만원)

구분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2000년	32	54	74	93	106	120
	2001년	33	55	76	96	109	123
	2002년	35	57	79	99	113	127
재산	2000년	2,900		3,200		3,600	
	2001년	3,100		3,400		3,800	
	2002년	3,300		3,600		4,000	

자료: 보건복지부(2002).

소득평가액 기준은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결정되며,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01년 12월에 공표된 2002년 최저생계비는 다음 <표 2-3>과 같다. 이는 2001년에 비해 3.5% 인상된 것이다.

<표 2-3> 연도별 최저생계비와 균등화지수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자료: 보건복지부(2002).

2) 신청원칙

수급자와 그 친척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3)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보호,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되며,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부가급여를 실시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보충급여제로 실시하며, 소득등급과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생계급여의 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제반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생계비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으로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소득과 주거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2003년부터는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로서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수선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자나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는 주거안정지원비를 지급 받는다. <표 2-4>는 2001년과 2002년의 생계비와 주거비 현금급여기준액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없는 가구가 현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말하며, 실제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제외한 값이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및 기타 수급품을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원한다. 대상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급하고, 2002학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연간 2만7천원의 부교재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해산급여는 수급대상인

<표 2-4> 현금급여기준

(단위: 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비	2001년	263	459	630	805	908	1,032
	2002년	276	476	653	831	938	1,065
	인상액	13	17	23	26	30	33
주거비	2001년	23		37		51	
	2002년	28		40		53	
	인상액	5		3		2	

자료: 보건복지부(2002).

출산여성에게 출산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2002년도에는 18만5천원이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긴급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 급여실시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주소득원의 질병이나 사망 등에 의해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자활급여와 관련이 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과 동시에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대상이지만 미취약자녀 양육자, 대학생, 근로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자활사업으로는 직업훈련, 공공근로, 창업, 자활공동체 사업, 구직활동 등에 수급자의 능력, 욕구,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참가하거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자는 3개월마다 심사를 받는다.

3.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표 2-5>에서 보듯이 2001년도 연평균 수급자는 149만명으로 1997년에 37만명에서 112만명이 증가했다. 2001년 11월 현재 수급자는 707,331가구 144만2천9명이며, 일반수급자

<표 2-5> 연도별 생계비 지급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1-9월	10-12월	
생계비지급대상	37	44	54	50	149	149

자료: 보건복지부(2002).

가 136만7천5백여 명이고, 시설수급자는 7만4천여 명이었다.

연령별, 생애주기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중년기가 수급자 비율에서는 30.7%로 가장 많지만 총 인구수 비율에서는 노년기가 9.8%로 가장 높다. 이는 노인 10명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의미이다.

<표 2-6> 생애주기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수급자수	1,367,540	49,179	113,896	244,655	211,303	419,478	329,029
수급자 대비 비율	100.0	3.6	8.3	17.9	15.5	30.7	24.1
총 인구수 대비 비율	3.0	1.3	2.8	4.4	1.3	3.2	9.8

주: 영유아기(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표 2-7> 생애주기별 남녀 수급자수와 총 인구대비 비율 (단위: 명, %)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수급자수	576,126	25,453	58,761	121,974	95,291	190,733	83,914
	비율	2.5	1.3	2.8	4.3	1.2	2.9	6.5
여자	수급자수	791,414	13,726	55,135	122,681	116,012	228,745	245,115
	비율	3.5	1.3	2.9	4.6	1.5	3.5	11.8

자료: 보건복지부(2002).

수급자의 취업 현황을 보면, 74.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노령,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거나 학생인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수급자 중 25.3%에 불과한 345,349명만이 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안정된 고용상태에 있는 비율은 6.4%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임시·일용직에 근무하거나 실직·미취업자이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고용과 일일고용으로 수급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표 2-8> 수급자의 취업 현황 (단위: 명)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15세 미만 포함)
	계	상시 고용	임시 고용	일일 고용	자영업	농수축 산업	실직 및 미취업	
1,367,540	345,349	22,044	34,838	149,079	53,479	4,717	81,192	1,022,191

자료: 보건복지부(2002).

수급자의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51.0%로 가장 많고 2인, 3인 가구는 각각 21.4%와 15.1%이었다.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표 2-9>에 나타난 것처럼 취약

계층세대가 63.0%로 기타를 포함한 일반세대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노인세대가 약 24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모자세대도 7만가구가 넘었다.

<표 2-9>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단위: %)

총계	일반세대	취약계층세대					
		소계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세대
100.0	37.0	63.0	33.9	14.2	10.1	2.8	2.0

주: 일반세대에 기타세대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02).

수급자의 주거 유형을 보면 69%가 무주택이고 자기소유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25.0%에 지나지 않았다. 무료임차, 월세, 전세, 영구임대주택 순이었다.

<표 2-10> 주거유형별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총계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영구 임대 주택	무료 임차	가정 위탁	기타(그룹 홈 오피스텔등)
707,331	176,582	91,723	131,949	21,036	74,874	168,828	7,161	35,188

자료: 보건복지부(2002).

수급자 가구의 경제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전혀 없거나 20만원 이하인 가구가 55.2%로 절반이 넘고 있으며 60만원 이상은 8.6%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의 도움이 없는 경우 전국적으로 약 65만 가구가 월 6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 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다. 대다수 가구가 재산이 없거나 1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표 2-11> 수급자 가구의 소득규모별 현황 (단위: %)

총계	0	0-20만 원 이하	20-40만 원 이하	40-60만 원 이하	60-80만 원 이하	80-100 만원 이하	100-120 만원 이하	120만원 초과
100.0	9.1	46.1	23.2	13.0	6.0	2.1	0.4	0.1

자료: 보건복지부(2002).

<표 2-12> 수급자 가구의 재산규모별 현황 (단위: %)

총계	0만원	500만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100.0	32.8	30.8	20.1	10.7	4.4	0.7	0.4	0.01

자료: 보건복지부(2002).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시행상의 문제점

생산적 복지 이념에 따라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복지사에 획기적인 제도라는 점에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아 결식아동이나 결식노인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기초생활보호법의 시행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을 가진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자산변동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부정수급자나 보호불필요자를 탈락시키고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요보호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대상자간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정부의 각종 전산자료를 이용하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산조사의 정확

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의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에서 벗어나 권리성 급여의 성격을 갖추어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화한 것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표 2-13>에 나타난 것처럼 생계비 지급 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2년에는 150만여명으로 확대되었다.

<표 2-13> 최근 5년간 생활보호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구분 \ 연 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안)
예산 (억원)	전체 (국고기준)		9,008	10,901	18,479	23,321	32,695	33,834
	자활예산		-	-	-	779	924	1,476
수급자 (만명)	수급자 (만명)	배정인원	141	147	192	154	155	155
		실제보호인원	105	129	148	149	151	
	생계급여 수급자		37	44	54	154	155	155
	자활사업참가자		-	-	-	33	83	11
1인당 기초생활보장예산 (만원) ※지방비 포함			82	96	124	195	232	281
현금급여기준 (무소득 2인가구, 단위 : 만원)			195	243	267	433	482	504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000	3,000	4,200	4,800	5,500	7,200 (예정)
	복지행정전산망		-	-	-	복지행정 시스템	복지 D/B	연계망 확대
	자활후견기관		10	17	20	70	200	(24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1. 자료를 첨삭 수정.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비 수준도 향상되어 소득이 없는 2인가족의 경우 1999년의 26만7천원에서 2002년 50만4천원으로 23만7천이 늘어났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실직자가 2000년 10월 3만3천명에서 2001년에는 8만3천명으로 늘어났고, 종합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후견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0개소에서 약 242개소로 늘어나 대부분의 시·군·구에 하나씩의 자활후견기관이 있게 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2000년 4,800명에서 2,400명이 늘어나고, 건물·토지·국세·고용안정 전산망이 연계되었으며, 복지정책 D/B가 구축되어 복지행정시스템과 전달체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계보호 대상자의 규모 문제로 이 제도를 통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빈곤층들이 배제되고 있다. 아직도 미리 정해진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과 생활보호법에 비해 강화된 선정기준으로 인해 상당한 수의 사각지대가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절대빈곤층 수준이지만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부가적인 기준을 통해 수급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했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했지만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있다. 허선(2001)은 여러 연구에서 지출을 근거로 한 도시전가구의 빈곤율이 98, 99년도의 경우 약 20% 내외이고, 소득을 근거로 한 근로자가구의 빈곤율도 7-1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에 의한 수급자수가 3.1% 정도에 불과한 것은 실제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탈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급규정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다 공제가 너무 많아 실제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전의 생활보호대상자 때보다 적은 경우도 많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 취로사업이나 취업을 하려 해도 수입액을 급여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일 자체를 피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폭을 늘려 급여산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최저생계비의 결정과 적용방식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대도시 수급자들은 물가 등의 차이로 인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최저생계비로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⁶⁾ 장애인·영아 및 취약아동이 있는 가구 등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유형의 가구도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현행 생계보호 방식이 지역간, 가구형태 간 생계비 차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최저생계비 인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히 예상물가상승률을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최저생계의 일정한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일반 가구 소비지출과의 상대적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 2000년의 최저생계비에 예상 물가상승률 3.0%를 인상하였으나, 실제 200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 생활물가상승률은 6.4%에 달했다.

셋째, 현금급여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고 그나마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다른 법률로 지원되는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교육세, 주민세 등 - 과 현물급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납입금, 보충수업비, 의료서비스 이용비는 현물로 지원된다. 하지만 급여로 제공되지 않는 교재비와 문방구비, 의약품과 보건의료용품구입비로 책정된 비용은 최저생계비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되어 현금급여기준이 낮아진다. 더구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다시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실제로 받는 액수는 매우 적다. 류정순(2001)의 연구에 의하면 2001년에 1인가구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급여는 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든 급여를 일괄지급하는 데 따른 차상위계층의 배제와 빈곤의 덫(poverty trap)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하나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가 되면 국가나 민간부문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원

6)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표준가구(부 36세, 모 33세, 1자 7세, 2자 5세)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 총족률을 100으로 했을 때 대도시는 86, 농촌은 106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대도시에 사는 것이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의 읍지역과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처럼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지역간 차등을 둘 경우 대도시로 빈곤층이 이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지역별 생계비 산정은 적절한 지표의 개발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아주 없는 실정으로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의 편의성이거나 포괄적인 기본 생계의 보장 측면에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먼저 대상자 확대가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제도 운영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율을 높일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하는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의 덫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수입의 증가에 따른 수급탈락은 곧 모든 급여의 중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자활활동에의 의무적인 참여와 함께 수급자들을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다섯째, 복지 인프라의 구축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와 자질이 부족하다. 이 제도를 실시할 당시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약 4800명뿐이었다. 이들이 담당하는 1인당 가구수는 약 250가구로 선진국의 2.5배나 되었다. 꼼꼼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짜 빈곤층을 가려내고 보호가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에는 1인당 130명 수준인 5500명으로 증원했고 200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200명(1인당 100가구)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원수의 확충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보고 해야 한다.

제 2 절 빈곤계층의 교육환경 및 영향요인

1.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

우리사회에서 빈곤층 아동들의 지적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사교육비⁷⁾의 차이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사교육비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2002)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 말까지 소득상위 20%이내 고소득층과 하위 20%이내 저소득층간의 과외, 학원교육비 지출격차는 4.6배로 증가했다. 이는 91~97년 사이의 3.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양 계층간 과외, 학원비 소비지출 격차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49개 세부품목 중 9번째로 컸다. 이와함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납입금과 교재비로 쓰는 비용의 격차도 각각 3.4배와 3.3배에서 4.2배와 3.5배로 확대됐다. 또 2001년에 우리 국민이 사교육과 공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 비용 가운데 소득상위 20%이내 계층이 사용한 몫이 전체의 34.2%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이내 저소득층의 비중은 단지 8.8%에 불과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강남 일부지역에서 고가 학원교육이 성행하면서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열풍과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생긴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계기는 대학진학이다. 한국개발연구원(2001)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교육의 형평성과 과외에 관한 실증분석」은 서울대 진학률과 과외비 지출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에서 고교를 졸업해 서울대에 진학한 비율이 25개 구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다. 강남구가 일반계 고교 졸업자 100명 중 2.7명으로 가장 높고 서초구 2.5명이었지만 강북의 한 지역은 강남구의 10분의 1도 안되는 0.25명에 불과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

7)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다. 사교육비에는 보습학원비, 개인그룹과외비, 특기나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수강료와 교재구입비, 학교 내 방과 후 과외비, 일일공부 문제집이나 테이프 구입비, 가정방문이나 인터넷 학습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합하는 경우 진학률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구별로 약 5배의 차이가 났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100명 당 8.0명과 7.7명이었지만 가장 적은 강북의 한 구는 1.8명이었다. 이런 진학률 격차는 과외비 지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구는 초·중·고생 한 명당 월평균 42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한 반면 진학률이 가장 낮은 구는 15만원대였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대학 진학기회의 차이를 통해 학력과 신분의 대물림을 만들어낸다. 그런 계층의 대물림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이 90년대 후반부터 많아지고 있다. 방하남과 김기현(2001)이 2000년도 한국 노동패널 자료 중 고교를 졸업한 30세 미만 2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 지위,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진학률도 높다. 그러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부모의 학력과 지위 등 문화적 요인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4년제 대학진학률이 69.1%로 중졸 이하일 경우의 진학률 27.1% 보다 훨씬 높았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는 45%이었다.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일 경우 4년제 대학진학률은 58.2%로 가장 높았고, 준전문직 사무직은 49.1%, 서비스 판매직은 35.5%, 기능 생산직은 28.5%, 농림어업은 24.3%이었다. 가족의 소득에 따른 대학진학률은 상층이 52.3%, 중층 37.6%, 하층 31.9%이었다.

<표 2-14> 부모의 교육수준과 대학 진학률 (단위: %)

부모의 학력	자녀의 4년제 대학진학률	자녀의 상위대학 진학률
전문대졸 이상	69.1	44.9
고졸	45.0	25.0
중졸이하	27.1	15.4

자료: 방하남 · 김기현, 2001.

사회계층별 수능서열 분포를 분석한 결과 수능서열상 상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부모를 둔 경우가 44.9%로 고졸(25%)이나 중졸

이하(15.4%)보다 훨씬 높았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 관리직의 경우가 37%로 준전문직이나 사무직(28.1%), 서비스 판매직(20.6%), 기능 생산직(21.2%), 농림어업(14.5%)보다 높았다.

<표 2-15> 부모의 직업에 따른 대학 진학률 (단위: %)

부모의 직업	자녀의 4년제 대학진학률	자녀의 상위대학 진학률
관리·전문직	58.2	37.0
준전문직·사무직	49.1	28.1
서비스 판매직	35.5	20.6
기능 생산직	28.5	21.2
농림어업	24.3	14.5

자료: 방하남 · 김기현, 2001.

방하남(2001)이 제2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사회적 지위 세습의 정도 및 추이」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적 지위에 40% 이상의 결정력을 갖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5000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학력 및 직업적 신분의 세습과정을 조사한 결과 부친의 학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43%에 달하며, 부친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7%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정도 및 직업적 지위도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산업화,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세대간 교육적, 직업적 지위세습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30-40년 동안 학력과 학벌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높은 학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경쟁적으로 자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위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2001년 8월 발표한 「2001학년도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는 교육 기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

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직업이⁸⁾ 관리직, 전문직 등 고소득 화이트칼라 계층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생산직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1년 5월 현재)에 나타난 우리나라 남성 경제 활동 인구의 직업 분포 중 관리직, 사무직, 전문직이 31.2%인 것에 비해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직업 분포 중 이들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69.3%나 돼 이들 직종의 부모가 자녀를 서울대에 보낼 확률이 다른 직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6>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직업 (단위: %)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업	미취업
1997	19.9	30.5	15.9	10.9	5.5	9.3	4.3	2.0
1998	21.7	28.6	15.8	9.3	6.2	10.0	4.7	3.6
1999	22.1	27.4	16.6	10.4	5.4	9.2	4.1	-
2000	23.2	26.6	16.9	9.5	6.3	9.3	3.5	4.7
2001	24.8	28.0	16.5	9.7	5.3	8.5	3.5	3.9

자료: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각년도.

신입생의 62.2%가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외 경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과대학은 음대(86%)였다. 다음으로 미대(80.9%), 의대(70.7%), 경영대 (68.9%)가 뒤를 이어 인기학과 입학과 사교육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반영했다. 주 성장지역을 나타내는 출신지 분포에서는 서울이 절반에 가까운 47.3%로, 지난해 45.2%보다 2.1%포인트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 간 서울 출신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 출신은 77.0%로 전체의 4분의 3을 웃돌았다. 대도시 출신 비율은 98년 67.8%, 99년 71.3%, 2000년 76.2% 등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의 지역, 계층간 편차 등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팽창한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8) 본 연구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직업과 대학 진학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나 연구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2. 빈곤층의 아동 교육

아동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정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가족구성형태,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부모-자녀 관계, 문화적 상태 등의 요인들은 아동발달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권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상류층이나 중류층 자녀들에 비해 교육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원인을 학생의 타고난 능력, 지능, 게으름, 성취동기의 부족 같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지위와 이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이 아동의 학업능력에 미치는 구조적 차원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요약해서 말하면,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지위가 아동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적,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결핍을 초래하고 그것이 다시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은 여러 측면에서 중·상류층 자녀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 부모의 교육 수준 - 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학력의 빈곤층 부모들은 취학전 자식들에게 문화적 교양과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⁹⁾ 이는 이 시기에 상당부분 결정되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cognitive skills)과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계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이러한 기초

9) 연극이나 영화관람, 도서관이나 박물관 방문, 해외여행, 가정의 지적 분위기, 가족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 부모의 예술적 취향, 신문이나 잡지 구독 등이 모두 아동의 지적자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형성된 지적자본의 양과 질이 아동의 학업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인문학적 교양이 서울대 입시를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심층면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입시 추세에서는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10) 약 60만의 학생과 6만의 교사를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결과인 콜맨 보고서(Coleman Report)도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환경에 의해 기초능력과 적성이 길러지고, 교과과정의 적응에도 가정환경의 차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는 성적 차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Coleman, et al., 1966).

능력들은 성공적인 학교 공부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빈곤층 아동들은 게임의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다.¹¹⁾

Bernstein(1973)은 어린 시절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로 아동의 학업 성취 차이를 설명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많고, 권위와 의사결정권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지위 및 역할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중류층 가정은 인지지향적이며, 정교하고 세련된 어법(elaborated code)를 선호한다. 반면에 가족상호간의 역할과 권위구조가 연령·성·상하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고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적은 하류층 가정은 지위지향적이며, 주로 한정된 어법(restricted code)을 사용한다. 계층에 따른 상이한 언어 사용 경험은 아동이 언어를 조직하는 차이를 만들어 내어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열거된 특징들은 하류층 아동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어법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이 어떻게 열등생이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Giddens, 1997, pp. 414-415).

- ① 하류층 아동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질문에 제한된 응답만을 받기 때문에 세련된 어법을 가진 학생보다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적고 호기심도 덜 갖는 경향이 있다.
- ② 아동들은 학교 규칙의 일반적인 원리들의 수용뿐만 아니라 수업에 사용되는 비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언어에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 ③ 교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동이 익숙한 언어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이해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아동은 교사의 말을 자신이 친밀한 언어로 번역함으로써(translating) 수업을 따라가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교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④ 하류층 아동은 암기식이나 반복학습에는 어려움을 덜 느끼는 반면에 일반화와 추상화를 포함한 개념구분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11) 이런 기초능력의 계층별 차이는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도 확대된다. 아동들의 공식학교수업에서의 성취에 유치원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많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많은 아동들이 학교가 요구하는 기초 수준의 지식과 지각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언어와 개념 발달 등에서 충분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아동이 학교공부에 잘 적응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경제적 자본(financial capital)의 측면에서 불리하다. 특히 우리처럼 교육열이 높은 사회에서 증가하는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송태정, 2002)가 대학입시와 미래의 사회적 지위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자본은 매우 중요하다. 중상층 이상의 부모들이 조기유학과 고액과의 등에 많은 사교육비 지출을 할 때 가난한 부모들은 사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아동의 보충수업비를 걱정한다. 공교육비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인 관악구 신림 7동 일대의 일명 난곡지역을 다룬 한 신문의 르포 기사에 의하면,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은 전체의 24%뿐이고, 시키더라도 월 5만원 이내가 39%로 가장 많았다(중앙일보, 2001,4,13). 그렇다고 저소득층 부모들이 빈곤문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동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중상류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도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를 기대한다.¹²⁾ 하지만 영세지역 어머니의 자식 교육에 대한 욕구가 일반지역 어머니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한국여성개발원, 1990) 실제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저교육 → 저기술 → 저임금 →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기 쉽다.

셋째, 교과과정, 학습평가 방법, 교사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교육 체제가 중산층에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학교교육은 근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 문화, 태도 등의 습득에 유리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¹³⁾을 소유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학교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언어 습관과 행동 방식을 가진 저소득층 아동들은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되며, 그 결과 학습 동기가 약화된다. 아동들과 교사와의 관계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불리하다. 교사들은 학생들

12) 김수현(2001)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가정내 문제는 취학자녀의 교육문제(36.0%), 주거안정(22.0%), 본인의 건강문제(16.0%), 가족의 건강문제(15.0%) 순이었다. 또한 이들은 수입이 늘었을 때 우선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지출은 교육비(51.6%), 주거비(17.0%), 저축(14.4%)이라고 응답했다. 저소득층 부모들도 자식들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13) 여기서 문화자본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어 몸에 익혀진 습성(habitus)과 태도를 지칭하는데 부모의 교육 정도나 출신계층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최선헌, 2002; Bourdieu, 1984; Lareau & Horvat, 1999).

을 능력과 계층에 따라 분류한 후 그들에게 상이한 기대와 행동을 한다 (Brophy & Good, 1974; Keddie, 1971; Rist, 1970).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수행 능력이 중류층 아동들에게 시작부터 뒤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행동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부모의 자질을 요구하는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 제 7차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우리 현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급학교 입시에 중요한 수행평가제의 도입은 부모의 경제적, 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학업능력 차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수능시험도 문화적 여유를 가진 계층의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문민정부 이래 도입되고 있는 교육개혁 조치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보다는 교육의 상품화를 가속화시켜 과외를 부추기고 학교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경향신문, 2001. 4. 3; 이민숙, 2002). 한 가지 특출한 소질을 가진 학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준다는 수시모집이나 특차모집 조치가 초등학생들의 과외비 증가에 일조했다는 것은 앞에서 본 교육인적자원부 자료가 증명해준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들은 건강 면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있다. 나쁜 건강은 경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여 학업 능력에 나쁜 영향을 준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공단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강명순은 공단지역 아동들이 영양 결핍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이며 그 결과 발달도 지체되고 있음을 알아냈다. 공단지역 내에서도 단칸월세방에 사는 아동이 자택 거주 아동보다 사회적 지적 발달이 더 낮았다. 고유미(1994)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를 계측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은 소아발육표준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영양섭취 실태도 열악했다. 빈곤과 그로 인한 어머니의 취업이나 방임으로 빈곤층 아동들은 결식을 하거나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기 쉽다.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면서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다섯째,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한 건강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개 좁은 공간의 전세집, 월세집,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방의 개수가 적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부방도 없다. 김수현(2001)이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44.3%가 가족수에 비해 방이 모자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들이 다른 저소득층 집단에 비해 매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20%). 김기태 등(1998a)이 부산광역시의 생활보호대상자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주거상태에 만족한 사람들은 24.2%에 불과했다.

열악한 주거 시설은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거나(Schopler & Keating, 1979) 애들을 밖으로 내몰아, 방과 후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만든다. 부모들은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일용직,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용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다(정현희·최경순, 1996). 방과 후 혼자 남겨진 아동들은¹⁴⁾ 과도한 TV 시청을 하거나 또래집단과 어울려 불량만화나 비디오를 본다. 이렇게 저소득층 지역의 유해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은 탈선행위를 하기 쉬우며 심한 경우 청소년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¹⁵⁾ 옥경희 등(2001)은 부산, 광주, 구미시에 사는 저소득층 아동 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자기보호(self-care) 아동 - 학교수업이나 학원 또는 놀이 등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거나 동생만 있는 경우의 아동 - 이 부모보호(mother-care) 아동보다 성적과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낮고 우울한 정서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자기보호 아동들이 다른 보호를 받는 또래들보다 학업성적이 낮고(Vandell & Ramanan, 1991; Woods, 1972),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고

14)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가 2000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2,8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육시설 수요자 욕구조사에 의하면, 방과 후 혼자 지내거나 형제자매들 끼리만 지내는 경우가 일반가정의 자녀는 30.0%, 취업모 가정의 자녀는 54.0%이었다. 하류층에서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보육을 요구한 비율은 34.0%로 조사되었다. 김수현(2001)의 연구에서도 방과후 혼자 지내는 아동이 57.3%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9.9%뿐이었다.

15) 2001년 12-14세 아동이 저지르는 범죄인 '촉법소년범죄'가 6천 건 정도이었다. 법원 소년부에 따르면 소년범 가운데 결손가정 출신이 20%가 넘으며, 7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 가정 출신이다(<중앙일보>, 2002. 5. 8).

(Galambos & Garbarino, 1985), 우울해 한다는(김주현, 1995)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여섯째, 빈곤층 아동들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보통 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과 시간의 투입을 의미하는 가족 내 사회자본과 부모의 사회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을 뜻하는 가족 외부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되는데,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1999, 2000; 주동범, 1998; Astone & McLanahan, 1991; Coleman, 1988; Milne et al, 1986). 하지만 빈곤층 부모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 빈곤층 부모들은 대개 학력 수준이 낮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한다. 상시직보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무직이 많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집약적 단순기술직, 단순판매나 서비스직, 노점상 같은 영세자영업에 종사한다(권현수, 1992). 이런 직종들은 그 성격상 가족 외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빈곤층 어머니들은 가계수입을 위해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심을 가질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낮은 학력수준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도 없다(이효재·이동원, 1981). 종사하는 직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하며 자모회 같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아동들은 정보화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미 크게 벌어진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학교 수업과 숙제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온라인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수단을 갖지 못한 아동들은 학업능력에서 매우 심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소득수준, 학력, 성별, 세대, 지역에 따른 접근기회의 차이는 정보의 빈부격차(digital divide)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체제의 확립 없이는 현재의 소외계층이 정

보화시대에도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산업과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는 세계에서 정보화에 뒤진다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차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절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동들의 의·식·주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킨다. 부모들은 생활에서 직면하는 상이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사회-감정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가정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아동의 환경이기도 하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형성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인간 행동에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이론 모형들에 의존하고 있다. 부모-자식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의 결과인 아동 발달은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 체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발달 모델, McLoyd의 가정과정(family process)모형, Conger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 등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이론틀을 제공한다. Kohn(1969)의 작업사회화 이론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ohn은 직업 특성이 어른들의 심리적,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 양육 가치와 행동에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Baumrind의 부모양육 유형 분류는 경제적 빈곤이 아동발달과 갖는 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심고리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이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긴 다양한 문제들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Lewis의 빈곤문화 이론은 우리 사회의 빈곤층들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빈곤 극복을 위한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각성시켜준다.

1. 인간발달과 환경

맥락주의(contextualism)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태주의나 정신분석학 같은 다양한 이론들이 환경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이런 초기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거나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McLoyd나 Conger 같은 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맥락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빈곤층 가정의 양육과정들이 아동발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양육과정들은 동시에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에 의해 받는다.

부모의 경제적 맥락이 아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던 초기 연구들 중 하나는 하와이 주 Kauai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 대한 Werner와 Smith의 종단적인 연구이다(Werner, 1989; Werner & Smith, 1982). 그들은 경제적 손실 및 그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가가 학령기 아동의 학업 및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친척이나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아동들은 그렇지 못한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는 사회적 맥락이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연구들이 의존하는 이론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 모델이다. 이 모델은 아동의 발달이 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 교류(transactional) 관계에 영향을 받고, 가족의 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사건이 모든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그는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만을 강조하는, 그가 “단일 방향성 영향(first order effects)”이라고 부른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선다(Bronfenbrenner, 1975). 그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체계들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가 second order effects라고 부르는 이런 영향들은 가족 체계의 구성 요소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존의 상호작용 유형을 변화시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이런 second order effects가 “직접적은 아니지만 아동이 속해 있는 상황 특히 가정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라고 주장한다(Bronfenbrenner, 1975, p. 15).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델은 아동의 발달이 세 개의 체계들 즉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Bronfenbrenner, 1979; 1986). "인간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주요한 맥락"으로 정의되는 중간체계에서 아동들은 주로 first order effects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Bronfenbrenner, 1986, p. 723). 중간체계는 아동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환경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아동들은 자신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곳에서 보낸다. 중간체계에는 아동들이 가족, 학교, 탁아소 등의 구성원들과 갖는 관계들이 포함된다.

Bronfenbrenner는 "아동들의 심리적인 발달이 자신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부체계를 자신의 모델에 포함시켰다(p. 723). 외부체계는 확대가족 네트워크, 부모들의 직장 및 직업 경험, 부모들의 동료, 친구 및 이웃,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등을 포함한다.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관계 및 그런 기관을 설립하고 규제하는 공공 정책들 또한 이 외부체계의 구성요소이다. 이런 구성요소들은 부모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아동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족 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은 주로 가정과정들에 대한 영향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거시체계는 중간체계, 외부체계, 공동체, 문화, 사회정치적 환경들 사이의 관계 및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소득, 직업적 지위, 부모의 교육 수준, 언론 매체의 영향, 다양한 공공 정책들과 같은 요인들이 그런 관계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맥락을 만들어낸다. 이런 요인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한 아동발달 터전인 가족체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McLoyd는 가정과정(family process) 모델에서 Bronfenbrenner의 이론을 빈곤 상황에 적용시킨다(1989; 1990; McLoyd & Wilson, 1991). 그는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흑인 가정의 부모 행동과 아동의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 만성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결혼관계와 부모 행동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가정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이런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 지원체계와 공동체의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모델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 가난과 경제적 손실은 부모의 지원, 일관성, 양육 등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 (2) 경제적 고통과 부모 행동을 매개하는 주요 요인은 많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life events),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의 지속, 결혼의 해체 등에서 생긴 심리적 디스트레스이다.
- (3) 경제적 손실과 빈곤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McLoyd, 1990, p. 312).

빈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은 감정이 메마르기 쉽기 때문에 아동중심적인 보살핌보다는 부모중심적인 사고를 주로 하게 되고 거부와 처벌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Conge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또한 경제적 손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과정들을 탐구한다. 그들은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있는 농촌가족들이 대공황 기간동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이 양육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격, 부부간 갈등, 자녀 양육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Conger et al., 1990; Conger et al., 1991; Conger, Reuter & Conger, 1993). 예를 들면,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식들에게 더 많은 분노, 처벌, 거부 및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을 보여준다(Elder, Liker, & Cross,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질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여자애들의 경우 많은 디스트레스(distress)를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은 복종을 중요시하며, 규율과 통제의 수단으로 육체적 처벌을 사용하고 논리적인 사고나 언어를 사용한 칭찬을 멀리한다. 보상, 설명, 상담, 자녀와의 협상 등은 부모 쪽의 인내와 관심집중을 요구하는 자질들인데, 빈곤 같은 디스트레스 상태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이 갖기 어려운 것들이다.

McLoyd와 Conger의 모형은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모형 모두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 행동은 또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두 모형은 부모

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행동을 매개하는 변수로 간주하며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McLoyd는 만성적인 빈곤이 가난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발달과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도 있다고 주장한다. McLoyd에게 양육행동은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들 중 하나일 뿐이다. 반면에 Conger와 그의 동료들은 빈곤이 아동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양육행동은 가정의 빈곤 상태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이들 사이의 이런 차이는 각 연구가 사용한 표본의 성격이 다른데서 기인한 것 같다. McLoyd의 연구 대상은 지속적인 빈곤 상황에 있는 흑인 가정들인 반면, Conger와 그의 동료들은 일시적인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던 시골 백인 가정을 표본으로 사용했다.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이다.

Kohn은 어떤 사람의 직업 특성이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심리적 특성과 가치가 자녀 양육 가치와 양육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Kohn, 1969; Kohn & Schooler, 1983, Kohn, Slomczynski, & Schoenback). 이 이론에 따르면 감독수준, 반복성, 업무의 복잡성, 책임 수준 같은 특정 작업 환경 조건들은 근로자의 지적 융통성과 자발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심리적 특성들은 또한 근로자의 양육 행동과 가치를 통해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부연하면, 부모들은 자신들 직업이 요구하는 가치와 행동을 내면화하며, 부모로서의 기대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들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직업 특성은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행동 모델들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Kohn은 화이트칼라 직업과 블루칼라 직업의 직무 성격들이 특정한 적응적 가치(adaptive value)를 창출하여 사회화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된다고 본다. 부모의 직접적인 이야기나 간접적인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식에게 전수된다. 두 직업은 계층과 관련된 상이한 직업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성영혜, 1992).

- ① 화이트칼라직은 개인에게 전형적인 사고, 상징 및 대인 관계면을 강

조하는 반면, 블루칼라직은 신체적, 물리적 사물들을 다루도록 요구하면서 대인적 기술은 덜 강조한다. ② 화이트칼라직은 복잡성, 유연성, 사고, 판단을 요구하는 반면, 블루칼라직은 업무의 표준을 더 기대한다. ③ 화이트칼라직은 블루칼라직보다 일관성이 있고 감독의 정도가 더 기대된다. 이런 직업조건의 차이가 상이한 가치지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아동 양육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층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Koh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직무 복잡성이 낮은 직업들은 매우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자극을 주지 못하고, 책임 수준이 낮고, 많은 감독을 받고, 지적으로 복잡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직업 특성들은 “성인의 지적 유연성을 감소시켜 아동 지적 환경의 비판적 측면을 제한한다”(Parcel & Menaghan, 1994, p. 976). 직무 복잡성이 높은 직업들은 지적으로 도전적이고, 지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자율성과 자발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Kohn의 이론에 따르면, 복잡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독립적인 사고, 자발성, 그리고 아동의 행동에 지침이 될 부모가 갖고 있는 규범의 내면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부모들은 아동에 대해 덜 규제적이고, 아동들과 애정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행동관리 전략으로 육체적인 처벌보다는 논리와 가치의 내면화를 선호한다. 대조적으로, 복잡성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직접적인 부모통제, 권위에 대한 존경, 동조적인 행동을 강조한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덜 헌신적이며, 자식들의 행동을 더 규제하고, 행동 통제 수단으로 신체적인 처벌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2. 양육행동이론

부모는 아동의 사회화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모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의 아동양육 방식이 같은 것은 아니다. 양육행동은 부모의 성,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자녀수, 살고 있는 지역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감정, 행동, 인지 발달에 유의미하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김경연, 1987; 김기정, 1984; Beyer, 1996; Epstein, 1991; Ho Sui-chu & Willms, 1996). 이런 연구들은 양육 행동과 아동 발달 사이의 다양한 관계들을 조사하여 사회 학습(social learning)과 행태주의(behaviorism)¹⁶⁾ 이론을 확장시키려 했던 Baumrind의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Baumrind, 1967, 1968). Baumrind는 부모의 권위와 통제 유형 특성에 따라 양육 행동을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권위적(authoritative)으로 구분하였다.

Baumrind의 양육유형학 분류는 Lewin의 작업에 빚지고 있다. Lewin은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성인 리더십 유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Adler, Lippitt & White, 1939; Lewin, Lippitt & White, 1939). 사회분위기에 관한 연구에서 Lewin은 민주적, 전제적, 자유방임적(laissez-faire) 리더십 유형을 조사했다. 민주적 리더십에서는 정책들이 집단토의와 집단결정에 의해 정해지며, 리더들은 그런 집단토의를 격려하고 지원한다. 전제적 리더십에서는 성인 리더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자유방임적인 리더십에서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결정들이 리더의 개입 없이 아동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진다. 민주적인 리더가 있는 집단에 속해있는 아동들은 집단 프로젝트에 더 많이 관여하고, 적대성을 덜 드러내며, 감독 없이도 더 잘 공부한다.

Baumrind는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 복종, 규칙과 기대에의 동조를 가치있게 여기는 사람을 권위주의적인 부모로 간주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 같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며, 어린이들은 부모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언어적인 논리의 사용을 제약한다. 이런 부모들은 아동들의 행동과 태도를 일련의 행위 기준에 따라 발달시키고 통제하려 한다. 이 기준들은 절대적인 것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동들의 행동과 신념이 부모가 옳다고 믿는 기준에 어긋날 경우에는 처벌을 하거나 그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권위

16) 이 이론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이나 사고과정 대신 사회 환경이라는 자극에 대하여 인간이 외현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을 중시하며, 부모와 학습자간의 관계의 성격을 무시한다. 양자간의 관계가 애정적이든 애정적이지 아니든 상관없이 강화와 모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반면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유기체가 외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피아제는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있다. 이들 이론 모두 아동발달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와 노동에 대한 존경, 질서와 전통적인 구조의 보존 등을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권위주의적인 양육은 호전성, 비행, 반사회적인 공격성 같은 아동 행동과 관련이 있다(Baumrind, 1991).

다른 연구들도 이런 유형의 양육이 적절한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위주의적으로 양육된 아동들은 매우 의존적이고, 공격적이고, 불안해하며, 경직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Bornstein, 1992; Bronstein, 1994; Lesser, 1985),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갖고 있다(Bayer & Cegala, 1992).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자신의 자녀를 어떤 이상적인 존재로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양육태도를 흔히 보여준다. 소득 수준이 낮고(Susman et al., 1985), 이혼했거나 혼자 살고(Kurdek & Fine, 1993), 마약중독이나 우울증 상태에 있는(Bauman & Levine, 1986; Susman et al., 1985) 부모들이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준다.

Baumrind(1978, 1991)는 아동의 충동적인 행동을 용인하고 수용하는 사람을 허용적인 부모라고 부른다. 이런 부모는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요구도 거의 하지 않으며, 엄격한 통제나 제한을 회피하고, 아동이 자신의 행동과 활동을 결정하고 규제하도록 고무시킨다. 이런 부모는 개인성과 자기결정을 가치 있게 여기며 부모의 간섭은 아동들이 이런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뿐이라고 믿는다. 낮은 수준의 규율과 행동 통제, 높은 수준의 수용과 자율이 이 양육행동의 핵심이다.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긍정적인 결과에는 아동의 자율성 증진과 학업능력의 향상이 있으며(Baumrind, 1991; Dornbush, 1987), 부정적인 결과에는 비행과 약물남용이 있다(Baumrind, 1991;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이런 상반되는 결과들은 허용적인 부모들의 특성인 감독과 통제의 부족에 기인한다(Baumrind, 1991; Maccoby & Martin, 1983).

마지막으로 권위적인 부모는 “아동의 활동을 합리적이고 이슈지향적인 방식으로 지도한다. 그녀는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고무시키며 자신의 정책 뒤에 깔린 논리를 아동과 공유한다. 그녀는 자율적인 자기의지와 규율있는 동조들 모두 가치있게 여기며, 일탈의 겨우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아동을 숨

막히게 속박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아동의 현 자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미래 행위를 위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한다”(1968, p. 261). 권위적인 양육행동의 특성은 단호하지만 가혹하지 않은 통제, 언어를 통한 추론과 토론의 사용, 기대와 훈육에서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다. 권위적인 부모는 아동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며,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 아동들의 표현과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와 자주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자신들의 무오류성이나 독단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Baumrind는 권위적인 양육이 아동 능력의 신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은 특별히 조숙하고, 자립적이고, 접근 지향적(approach oriented)이다(Baumrind, 1967, 1968, 1989).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자기통제에도 능숙하다(Baumrind, 1970).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 친사회적 행동, 적극적인 적응 능력 등도 권위적인 양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Baumrind, 1991).

다른 조사들도 Baumrind의 이런 결과들을 지지한다. 권위적인 부모는 엄격하고 한계를 설정하지만 아동을 존중한다. 권위적인 양육을 받은 아동은 학업 성취와 도덕 발달 수준이 높고(Boyes & Allen), 자립적이고 조숙하며(Taylor, Casten & Flickinger, 1993; Watson, Little & Biderman, 1992),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력과 상호작용을 보여주고(Hein & Lewko, 1994; Pratt, Green, MacVicar & Bountrogianni, 1992), 약물복용이나 흡연 같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Bayer & Cegala, 1992; Jackson, Bee-Gates, & Henrikson, 1994).

이처럼 권위적인 양육행동은 여러 의미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갖춘(competent) 아동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방식이다(Greenberger & Goldberg, 1989). 따라서 빈곤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모들이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가정의 빈곤과 관련이 있는 특성들과 권위적인 양육행동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드물다.

발달의 생태학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

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김지신, 1996; Shatter, 2000). 온정·수용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Scott, Scott, & McCabe, 1991), 학업성취도 및 지적 발달(Pettit, Bates, & Dodge, 1997), 사회성 발달(Brody & Shaffer, 1982; Kochanska, 1977), 문제해결력(김원경·권희경·전제아, 2001; Moss, Gosselin, Parent, Rousseau, & Dumont, 1997; Rueter & Conger, 199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부모의 수용성과 온정성, 아동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는 아동의 긍정적인 자가지각과 자기신뢰의 발달, 심리적 안녕 등에 기여한다(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부모의 적대적이고 과다한 간섭과 통제는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전성일, 1996; 김재희·주은선, 2002; Ray & Plapp, 1990). 거부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행동을 자주 일으킨다(Scott-Little & Holloway, 1992;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 김재희·주은선(2002)의 연구에 의하면 부적응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더 통제적이고, 덜 수용적이고, 덜 온정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많은 연구들은 사회계층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김경희·황혜정, 1998; 차은영, 1987; Kohn, 1979; Gecas, 1979).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계층이 결정되어진다. 일단 어느 계층에 속하게 되면 그 계층에 어울리는 생활양식과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자식들에게 사회화과정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양육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온정·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보다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한다. 저소득층 부모는 중류층 부모에 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허용·방임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 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이 더 많은 정서·행동 문제와 비행을 보인다(김경희·황혜정, 1998; 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1986; Kazdin, 1987; Rutter et al., 1979). 이는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을 유발시킴으로써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간에는 많은 관련이 있다. 양육행동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Baumrind(1970)가 도구적으로 능력있다(instrumentally competent)고 규정한 아동들은 온정적인 부모,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율을 주면서도 합리적인 경계를 정확하게 긋는 부모,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Baldwin, 1948; Sears, Maccoby, & Levin, 1957; Symonds, 1939). 반면에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은 부모가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폭력이나 형식적인 규칙에 의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Baumrind, 1967, 1968, 1970, 1971, 1972; Baumrind & Black, 1967; Belsky, Lerner, & Spanier, 1984). 감수성이 있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성취동기, 호기심, 자립, 독립심, 창의성, 자기통제, 정직, 이타심 같은 인지적, 행동적, 사회-감정적 능력을 증가시킨다(Beckwith & Cohen, 1980; Bornstein, Tal, & Tamis-Lamonda, 1991; Cochran, Luster, & Okagaki, 1993; Mussen, Harris, Rutherford, & Keasey, 1970). 절대적인 통제와 폭력에의 의존을 강조하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아동특성들은 의존성, 공격성, 불안, 적대감, 비행 등이다(Bornstein, 1992; Baumrind, 1991).

3. 스트레스

저소득층과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저소득층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노력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 연구들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발달이 갖는 직접적인 관련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과정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구분해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능력의 차이가 아동 개인의 특성으로만 돌릴 수 없는 다른 경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부모가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부담은 스트레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가 환경의 요구와 일치하지 못함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불균형·부정합 상태를

가리킨다. 스트레스는 환경이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요구를 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환경이 충족시켜 주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부가적인 성질이 있어서 개인이 환경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스트레스의 발생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그리고 환경의 요구가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가 높거나 충족되지 못한 개인의 욕구가 매우 중요한 것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인간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정도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개인이 환경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그 성격상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의해 조정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중요하다고 인지한 상황적 요구(situational demand)를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한 개인은 즐겁지 못한 감정을 갖거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원(stressor)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가정 안에서의 이슈, 생활사건, 경험 등 가정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촉발시키는 자극들이다.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된다. 이런 자극들은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잠재적으로 유해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그런 스트레스원으로 저소득층 어머니가 경험하는 경제적 결핍과 불확실성,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자녀의 교육문제, 열악한 주거 환경, 낮은 사회적 위신과 고립, 빈번한 부부갈등이나 이혼 등을 지적한다(김영희, 1996; 조희선, 1991; Dohrenwend, 1970; Ge et al., 1994; Makosky, 1992; McLoyd, 1990, 1998; Whipple & Webber-Stratton, 1989).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스트레스원들은 가족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며(Coyne et al., 1987; Pittman et al., 1989), 부모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자녀관, 행동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많은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온정적이고 자신있게 돌볼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 부모는 자녀들의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양질의 관

심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 할 가능성이 높다(Sameroff & Seifer, 1983). 예를 들면, 1,513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annan & Eggenbean(1993)은 스트레스를 주는 둘 또는 세 개의 생활사건을 경험한 가정들은 스트레스원을 한개 가진 가정보다 HOME에 의해 측정된 가정환경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들은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들이 겪는 고통에 누적효과(additive effect)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가 가진 스트레스원은 아동의 적응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Hodges, Buschbaum, & Tierney, 1983; Hodges, Tierney, & Buschbaum, 1984; Sandler & Block, 1979; Sterling et al., 1985; Wallerstein, 1987).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활사건들의 연속적인 발생은 아동의 행동과 부모의 양육 스타일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선행요인들이다(McLoyd, 1989; Sandler & Block, 1979; Sterling et al., 1985; Teti et al., 1995; Wallerstein, 1987). 예를 들면, Hodges, Tierney & Buschbaum(1984)은 부모들이 겪는 생활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취학전 아동들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낮아지고, 산만함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을 자주 경험하면 아동능력이 감소하고 부적응은 증가한다(Sandler & Block, 1979; Sterling et al., 1985).

복합적인 스트레스원들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에게 나타난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연속적인 생활사건들은 아동의 부적응 및 능력 감소(Sterling et al., 1985), 행동문제(Sandler & Block, 1979; Wertlieb et al., 1987), 행동과 학업문제(Dubow & Tisak, 1989), 의존성 증가, 집중력 저하, 불안한 행동(Hodges, Tierney & Buschbaum, 1984) 등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중간 계급 초등학교 아동 655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실시한 종단(longitudinal)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많을수록 아동의 적응수준이 낮았다(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첫번째 시점에서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들이 많으면 두 번째 시점에서 아동의 학업능력과 행동적응력이 낮았다.

스트레스원들은 가정 내 환경의 변화와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Hannan & Eggenbean, 1993; McLoyd, 1989; Sterling, 1985; Wallerstein, 1987). 예를 들면, 부모의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삶에 대한 통제가능성, 우울증 수준 등이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다 (Roggman, Moe, & Hart, 1993).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부모-아동의 애착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bidin, 1986). 만성적인 스트레스원들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갖게 만든다 (Adrian & Hammen, 1993). 많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양육에 관심이 적고 아동과의 의사소통도 적극적이지 않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 효과도 더 부정적이다. McLoyd(1990)는 빈곤과 경제적 손실이 성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련의 부정적인 생활사건들에 연속적으로 직면함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의 위기가 증폭된다. 제한된 경제적 자원과 스트레스원들의 상호전염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활사건들은 종종 위기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회계층과 정신건강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이런 McLoyd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빈곤이 성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리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고정자, 1994; 김인숙, 1994; 어주경, 1998; Belle, 1990; Conger et al., 1992; Liem & Liem, 1978; McLoyd & Wilson, 1991; Simons et al., 1993; Urban Institute, 1999).

스트레스는 환경이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요구를 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환경이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자원을 갖게되면 스트레스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단시일 내에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주위의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친구, 친척, 민간이나 공공 복지기관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가 저소득층의 스트레스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Hirsch & Reischl, 1985; Quamma & Greenberg, 1994; Sandler, 1980).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빈곤층 어머니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국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다양한 연속적인 스트레스원들도 극복불가능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의 스트레스 연구는 개인의 지각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부정적인 생활사건들이 부모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했다. 그러나 동일한 생활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생활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 여부가 중요하다(Brown & Siegel, 1988; Delongis et al., 1988; Gelfand et al., 1992). 생활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손실을 만들어내고,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어야 한다(Brown & Siegel, 1988; Oatley & Bolton, 1985; Pearlin & Schooler, 1978; Sarason et al., 1978). 생활사건의 중요성은 또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Hammen, 1991; Rutter, 1981). 스트레스원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되살리거나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과 관련성이 높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따라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적인 반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빈곤층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실제로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도 측정한다.

4. 빈곤문화이론

Oscar Lewis(1959, 1966)는 빈민층에 대한 일련의 인류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빈민층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그것에 의해 동기화되는 목표 추구의 문화 즉 지배

문화(dominant culture)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체념과 적응의 문화를 발전시킨다. 이런 하위문화(subculture)는 빈민공동체 내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며, 나아가 사회화과정을 통해 세대간에 세습됨으로써 빈곤 자체를 재생산하는 주된 기제로 작용한다.

Lewis에 의하면, 빈곤문화는, 첫째, 빈민층이 학교, 교회, 정당,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의 주요 제도들(institutions)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은행, 병원, 백화점, 박물관, 화랑 등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둘째, 빈민층은 어머니 중심의 가족이 많으며, 아동 기간이 짧다. 이는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으며 쉽게 헤어진다. 자식에 대한 매질이 갖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자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없으며 가족의 단합이 강조된다. 셋째, 빈곤문화는 또한 무력감,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을 배양하여 빈민들을 쉽게 체념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충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하고 현재중심적인 생활을 한다. 자아구조도 빈약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빈곤문화 이론에 따르면 가장 근원적인 빈곤의 원인은 빈곤층의 자녀양육 방식이다.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 학교 교육에서 실패하게 된다. 학교에서 낙오된 빈민 아동은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임시·일용직을 갖게 된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빈민 아동은 조혼을 하거나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자녀를 갖는다.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자식을 만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회화 영향력을 줄이는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과 정규교육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일환으로 시작된 Head Start 프로그램은 이런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부터 아동들을 분리시키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빈곤문화론은 1960년대 이후 빈곤문화의 특징이 가난한 사람들 사

이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런 빈곤문화가 세습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인종차별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반대자들은 빈곤문화란 없으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기회의 부족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빈곤층 사이에 빈곤문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 노력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아직 혼란스럽다. 김영모(1982)는 우리나라에도 빈곤문화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세대간 전승되기 어려운 주로 문화적 실조(cultural deprivation)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제 3 장 연구모형과 조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제2장에서는 빈곤층의 생활환경, 스트레스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우리사회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들을 사용해 입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수급자들의 현황을 알아보고 빈곤층들의 자녀 교육 특성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해 본다. 그런 다음 관련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런 변수들의 측정을 위한 도구들을 설명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표본의 선정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들이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1. 연구모형

지난 몇 십년 동안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일관된 연구 결과들 중 하나는 아동의 학업성취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하나가 가정환경이라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가정환경과 학업성취의 상관도가 Dave(1963) 0.80, Bloom(1981) 0.80, Jencks(1972) 0.55 등으로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환경의 어떤 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가족수입이 아동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강정규, 1986; 김경근, 2000; 김병관·김영화, 1999; 김왕근, 1988; 박명애, 1981; 이해명, 1998; 장상수, 2001; 한준상, 1990; Alexander & Simons, 1975; Coleman et al, 1966; Jencks et al., 1972), 부모의 자녀 교육관, 부모의

기대수준, 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문화실조(cultural deprivation), 언어 등 가정의 심리적, 문화적 환경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계층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김경근, 2000; 배종웅, 1993; 이종성, 1981; 주동범, 1998; 한충효, 1984; Astone & McLanahan, 1991; Ballatine, 1997; Bernstein, 1973; Milne et al., 1986; White, 1982).¹⁷⁾

본 연구는 빈곤층 가정환경 특성들이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과 양육행동이 가정환경 특성과 학업성취 지향성 사이를 매개하는지, 그리고 매개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떤 방식으로 매개하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빈곤층의 열악한 가정환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가정환경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빈곤가정의 자활을 돕기 위해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수급자 가정의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어머니의 아동 양육행동,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들의 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빈곤층 가정의 생활환경,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자녀 양육행동이 아동의 교육성취지향성과 갖는 독자적인 관계이다. 즉, 본 연구의 3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아동의 교육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빈곤층 가정의 생활환경 스트레스원, 빈곤층 부모의 스트레스 지각 및 자녀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부(負, negative)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들 3가지 독립변수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비교해 본 관계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에 포함된 여러 하위요인들(부모의 학력, 소득, 직업 등)과 다른 배경요인들(어머니의 취업 여부,

17) 이것들 외에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많다. 지역(김병성 외, 1981), 학급규모(공은배 외, 1984), 교사의 기대(Rosenthal & Jacobson, 1966), 교사의 태도(Reed, 1961), 지능(구병두, 1989; Herrnstein & Murray, 1994) 등 다양한 가정 외적 요인도 학업성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빈곤층의 가정환경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교육 실시 여부 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 차원들 각각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런 독립적인 영향들을 비교해 본다. 세 가지 주요 독립변수들이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즉 주요 가정환경 특성들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자녀 양육행동 하위차원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를 연구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셋째,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관계이다. 빈곤층 가정의 특성요인,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 양육행동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환경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해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 방식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① 가정환경 특성 → 지각된 스트레스, ② 가정환경 특성 → 지각된 스트레스 → 부모의 양육행동, ③ 가정환경 특성 → 지각된 스트레스 → 부모 양육행동 → 아동의 학업성취 등 모두 3개의 경로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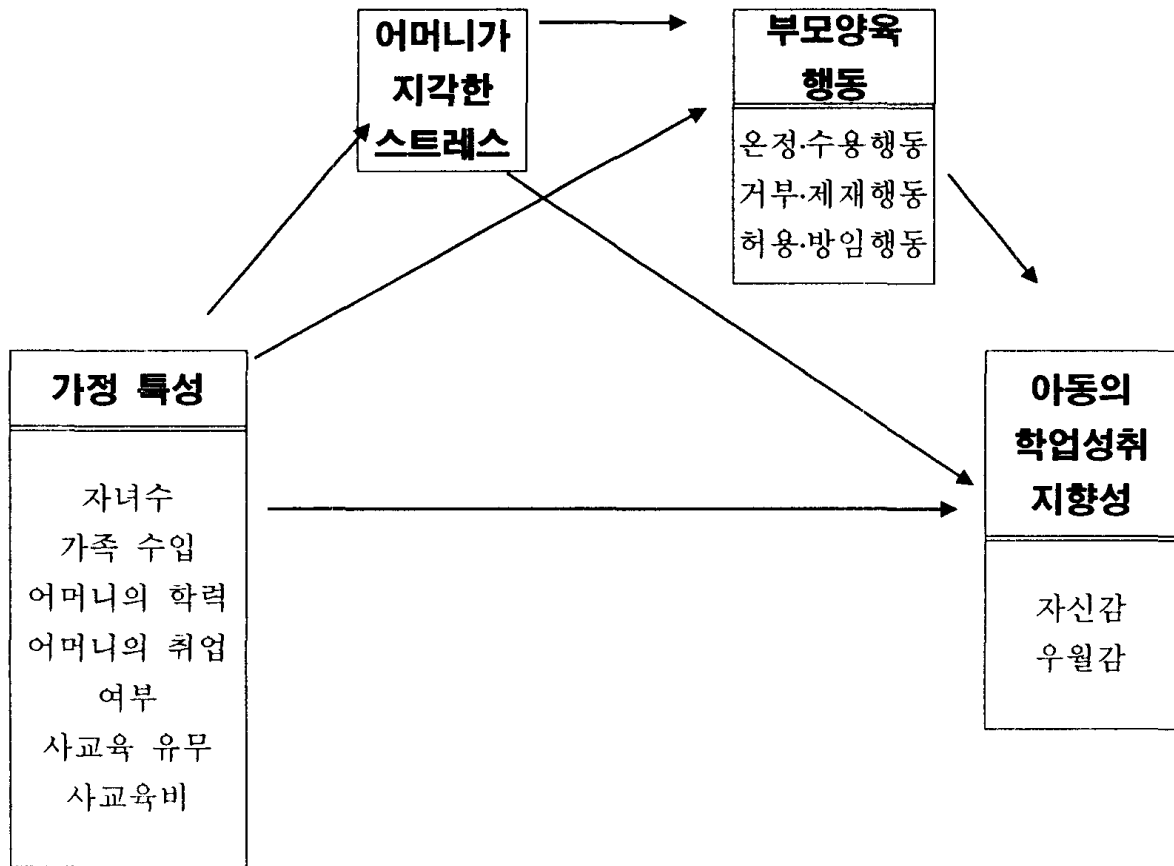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주요 요인들인 빈곤층 가정의 주요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가설의 설정

제1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앞의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빈곤층 어머니의 가정환경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

빈곤층 가정 어머니의 아동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



<그림 1>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 모형

으며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빈곤층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과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빈곤층 아동이 학업성취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과 우월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1> 빈곤층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적이거나 허용·방임적이기 보다는 거부·제재적일 것이다.

<가설 1-2> 빈곤층 아동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가설 1-3>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빈곤층 가정의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간의 관계

빈곤층 가정의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아동 양육행동 유형,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빈곤층 가정의 특성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이 어떻게 아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층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아동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2-1> 빈곤층 가정의 제반 특성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부(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자녀수가 많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가정 수입이 적을수록 아동은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가설 2-2> 빈곤층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부(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가설 2-3> 빈곤층 어머니의 온정·수용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정(正)인 관계를, 거부·제재행동과 허용·방임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부(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3) 열악한 생활환경, 스트레스, 어머니의 아동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열악한 생활환경이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 아동 양육행동,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는 아동 양육행동과 학업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양육행동 유형들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동의 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3-1> 빈곤층의 생활환경과 스트레스의 강도는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거부·제재적인 양육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가설 3-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만족 여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아동 양육행동이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 빈곤층 가정의 열악한 생활환경,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어머니의 아동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들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 간의 관계

빈곤층 아동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곤층 가정의 특성과 요인은 무엇인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연구문제 4>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1> 모든 요인들 중 모의 학력과 가정 수입이 아동의 우월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가설 4-2> 모든 요인들 중 모의 학력과 가정 수입이 아동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5) 사교육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의 관계

빈곤층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에 대한 답을 통해 빈곤층 가정의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5-1> 사교육비 지출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정(正)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신감과 우월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5-2> 학원 수업을 포함한 과외 수업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정(正)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 가정의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행동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각 변수의 정의, 측정문항의 구성, 점수 범위,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정(1984)이 작성한 문항을 이용했다. 아동 개인이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분석에서는 내적 일관성이 낮게 나타난 7개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동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대로 ‘아주 그렇다’(4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까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이다. 2, 7, 12번은 우월감을, 10, 13, 15번은 자신감을 표현하는 문항들이다. 반면에 1, 4, 14번은 열등감을, 6, 8, 9, 11번은 자신감이 없는 경우를 나타내어 역채점되었다. 각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우월감은 6-24점이고 자신감은 7-28점이다. 두 경우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과제나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월감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0.75이고 자신감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0.82이었다.

2) 가정의 배경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한 급여 이외의 가족 수입, 자녀수, 사교육 실시 여부 등을 각 가정의 배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초졸이하와 대졸이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미(dummy)변수로 만들어 고등학교 중퇴이상

이면 1, 중졸이하는 0으로 코딩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더미변수로 취업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사교육 실시 여부는 사교육을 시키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자녀수, 가족의 수입, 사교육비 액수는 연속변인이다. 아동의 경우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코딩하였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빈곤 상황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ohen(1983)이 Lazarus의 상호교류스트레스모델에 기초하여 제작 사용한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이 예측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없었다’(0)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4)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각된 능력을 알아보는 10개 문항 중 4, 5, 7, 8번 문항은 자신감을 표현하여 역채점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번과 3번을 제외하고 8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어머니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0.68이었다.

4) 어머니 양육 행동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제작하고 어주영(1998)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주영은 8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박영애의 양육 행동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 38개를 선택하였다. 어주영이 사용한 양육 행동 척도는 온정·수용 행동에서 14문항, 거부·제재 행동에서 12문항, 허용·방임 행동에서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어주영이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이 낮은 것으로 판정한 항목을 제외한 37문항을 선택하여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간명한 요인 추출을 위해 Varimax 방법에 따른 직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높이기

<표 3-1> 양육행동의 회전된 요인계수 행렬표

문항 번호	요인 1 은정·수용행동	요인 2 허용·방임행동	요인 3 거부·제재행동	h (공통분산)
21	0.75343	0.02072	0.02089	0.569
2	0.72479	-0.00443	0.00746	0.525
26	0.71196	0.00755	0.02967	0.509
27	0.70813	-0.09578	-0.00422	0.511
31	0.69287	-0.04533	-0.29568	0.570
18	0.67731	0.10512	-0.20000	0.510
17	0.65902	-0.10724	0.03243	0.447
13	0.63092	-0.04256	0.03412	0.401
33	0.57849	-0.07424	-0.30213	0.431
16	0.56561	0.22457	0.22883	0.423
24	0.53714	0.09724	-0.36335	0.430
35	0.53516	-0.03475	-0.25448	0.352
23	0.50707	-0.11872	0.17068	0.300
12	0.49606	0.17973	-0.25015	0.340
29	0.48919	0.26628	-0.03825	0.311
11	0.25544	0.76747	0.24136	0.715
8	0.17163	0.72692	0.33783	0.672
4	0.27285	0.70903	0.18260	0.610
36	-0.16311	0.70204	-0.15135	0.542
37	0.06387	0.69724	-0.16927	0.519
15	-0.01681	0.61788	0.00665	0.382
28	0.12671	0.61355	0.24481	0.452
6	-0.05486	0.60298	0.16830	0.395
25	-0.10337	0.58599	-0.10402	0.365
20	0.00855	0.55119	0.30689	0.398
32	-0.35026	0.52961	0.02318	0.404
3	0.11874	0.09277	0.68501	0.492
22	0.04584	0.49592	0.62553	0.639
7	-0.16147	0.13423	0.59714	0.401
5	-0.15402	0.14521	0.58258	0.395
10	-0.07587	0.42257	0.49184	0.426
14	-0.38285	-0.18294	0.43541	0.370
Eigen값	6.4154248	5.4383941	2.9397811	14.737
설명분산 백분율	43.53%	36.90%	19.54%	
누적설명분산 백분율	43.53%	80.46%	100.00%	

위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40 이하) 1, 9, 19, 30, 34번을 제외한 총 32문항을 재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온정·수용 행동이 6.42, 거부·제재 행동이 2.94, 허용·방임 행동은 5.44이었다. 각각의 요인이 설명해주는 분산량은 43.53%, 36.90%, 19.54%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자신의 평소 행동을 생각하여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비슷하다’(4점)에서 ‘아주 다르다’(1점)까지 선택하는 4점 척도이다. 어머니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온정·수용 행동의 경우 15-60점,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 4-24, 허용·방임 행동의 경우 1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양육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행동별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온정·수용 행동이 0.90, 거부·제재 행동이 0.75, 허용·방임 행동이 0.89이었으며, 32개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85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을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변수별 도구의 문항수, 가능한 점수 범위, 내적합치도 계수

측정변수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어머니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8	0- 32	.68
어머니 양육 행동	온정 · 수용 행동	15	15- 60	.90
	거부 · 제재 행동	6	6- 24	.75
	허용 · 방임 행동	11	11- 44	.89
아동	우월감	6	6- 24	.75
	자신감	7	7- 28	.82
인구통계학 및 기타 변수		16		

제 3 절 표본의 선정 및 자료의 분석 방법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집단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가정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어머니가 모두 있는 가정으로 제한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빈곤층 아동 교육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 유무는 문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사용한 표본은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수집되었다. 표본추출의 편의성(bias)을 줄이기 위해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이 바람직스럽지만 대상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비확률적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지는 관악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2002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초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수급자들 중 156명의 소재가 파악되어 직접 설문지 작성을 도왔지만 일관성이 없는 응답지들은 제외시켰다. 그 결과 본 연구는 114부의 설문지만을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질문지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은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지위를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이 사용되었다. 어머니의 아동 양육행동 및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 척도의 구성요인들을 분류하기 위한 요인분석으로 직교회전을 통한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가정 특성,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 아동 양육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각 변수들의 하위요소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다양한 변수들이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설명력을 살피기 위한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의 내적합치도 계수 계산이 이루어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이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계산하고 기술통계분석,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위요인들이 독립변수가 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5>는 기술통계분석과 t-검증으로 분석되었다.

제 4 장 실증분석의 결과와 해석

제 1 절 기초자료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관악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비교적 젊은층이었다. 이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학업성취지향성을 연구한 본 논문의 성격상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36-40세 인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하나 45세 이상은 거의 없었다. 또 다른 연구 대상인 아동들의 분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85.01%로 고학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4학년 학생이 23.68%로 가장 많았고 1학년 아동은 2.63%로 가장 적었다. 성별은 남녀 각각 57명으로 동수이었다.

2명의 자녀수를 둔 가정이 71명으로 가장 많고 1명의 자녀만을 가진 가정도 33명으로 전체의 28.95%이었다. 어머니들의 99%가 고졸이하로 나이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았다. 중졸이하가 23.7%이고 대학을 다닌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가정의 해체도 심각하여 이혼한 여성이 45명으로 39.47%를 차지했으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절반정도(52.63%)에 지나지 않았다. 관악구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이혼율은 2001년 전국 평균 이혼율보다 훨씬 높았다. 거주 환경도 열악하여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약 63만원 정도이었다. 월 평균 수입이 51-70만원인 가정이 6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90만 원 이상인 가정은 5가구에 불과했다. 5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거의 20%나 되었다. 이러한 빈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취업을 하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71.93%로 전국 여성경제활동참여율보다 훨씬 높았다. 취업한 여성의 거의 모두가 식당일, 파출부, 단순판매직, 노점상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한 명도 없었다. 가난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대다수가 이 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3.51)에 불과하고 88명(77.19%)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다고 대답했다. 교육 급여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서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102명

으로 89.48%를 차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사교육 열풍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52.63%로 받지 않고 있는 아동보다 많았다. 과외를 하는 가정들은 한달 평균 16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 전체 가정의 평균 월수입이 약 63만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액수이다. 월 평균 16만 원 이상을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이 34가구로 사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의 56.67%를 차지했으며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정도 26.67%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총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의 정도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정의 정보화율이 매우 높았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97.37%로 거의 전부였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도 88.60%이었다. 이는 물론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컴퓨터를 하나의 학습도구로 여기는 어린 학생들이 연구 대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높은 정보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인 것 같다.

<표 4-1> 연구대상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N= 114)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
연령	30세 이하	1	0.9	자녀수	1명	33	28.95
	31-35세	21	18.4		2명	71	62.28
	36-40세	73	64.0		3명	9	7.89
	41-45세	15	13.2		4명 이상	1	0.88
	46세 이상	4	3.5				
결혼상태	기혼	60	52.63	교육수준	초졸	2	1.75
	사별	7	6.14		중졸퇴/졸	25	21.93
	이혼	45	39.47		고졸퇴/졸	86	75.44
	별거	2	1.75		대학중퇴/졸	1	0.88
거주형태	월세	113	99.12	취업여부	취업	82	71.93
	기타	1	0.88		미취업	32	28.07
월평균 수입	40만원 이하	6	5.26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만족여부	매우 만족	0	0.00
	41-50만원	16	14.04		만족	2	1.75
	51-60만원	36	31.58		보통	22	19.30
	61-70만원	34	29.82		불만족	86	75.44
	71-80만원	17	14.91		매우 불만족	4	3.51
	90만원 이상	5	4.39				
사교육 실시 여부	실시	60	52.63	사교육비	10만원 이하	19	26.67
	미실시	54	47.37		11-15만원	7	11.67
					16-20만원	18	30.00
					21-25만원	15	25.00
					26만원 이상	1	1.67
컴퓨터 소유여부	소유	111	97.37	인터넷 이용	한다	101	88.60
	미소유	3	2.63		안한다	13	11.40
아동의 학년	1학년	3	2.63	아동의 성	남성	57	50.00
	2학년	14	12.28		여성	57	50.00
	3학년	21	18.42				
	4학년	27	23.68				
	5학년	25	21.93				
	6학년	24	21.05				

제 2 절 가설검증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가설검증을 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수는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만 부(-)적 관계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동들을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수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 수입,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 등과 부적 관계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자녀수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이 거부·제재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r=0.16$)가 있었지만 $p<0.10$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본인의 취업여부, 가정 수입, 사교육비, 스트레스 지각 등과는 정적인 약한 관계를, 그리고 자녀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과는 약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가정 수입 및 스트레스 지각과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온정·수용 행동과는 $p<0.0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수입이 적을수록 취업하는 어머니가 많고 취업한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 여부와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이 $r=0.34$ 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취업한 여성일수록 아동들을 애정으로 돌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표 4-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자녀수	모의 교육수준	취업여 부	수입	사교육 비	스트레 스지각	온정 수용행동	허용방입	거부 제재행동	우월감	자신감
자녀수	1.00										
모의 교육수준	-.04	1.00									
취업여부	.06	.11	1.00								
수입	-.06	.02	-.24*	1.00							
사교육비	.05	.06	.16+	.02	1.00						
스트레스 지각	-.10	.03	-.22*	.18*	.12	1.00					
온정·수용 행동	-.06	.16+	.34***	-.26**	.25**	-.40***	1.00				
허용방입	-.21*	-.10	-.03	.04	.16+	.10	.08	1.00			
거부·제재 행동	.02	-.19*	-.17+	.11	.12	.29**	-.22*	.41***	1.00		
우월감	.01	-.02	.05	-.05	-.09	-.33***	.33***	-.05	-.30***	1.00	
자신감	.10	-.11	.10	-.11	.05	-.40***	.36***	.03	-.13	.53***	1.00

+ p<0.10 * p<0.05 ** p<0.01 *** p<0.001

의미한다. 취업 여부는 사교육비와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데($r=0.16$, $p<0.10$), 취업한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취업 여부는 또한 거부·제재적인 양육방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는데($r=-0.17$, $p<0.07$) 이는 취업한 어머니들이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약한 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가정의 수입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과 $p<0.05$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그리고 온정·수용 행동과는 $p<0.01$ 수준에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고, 아동에게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 여성들이 가정 내외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동들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가정 수입이 다른 두 유형의 양육 행동과는 약하지만 정(+)적 관계를, 그리고 스트레스 지각과 취업여부 및 온정·수용 행동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추정 가능한 현상이다.

사교육비는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에만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어머니일수록 애정 있는 자녀 양육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허용·방임 행동과도 $r=0.16$ 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p<0.10$ 수준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 밖에도 사교육비는 스트레스 지각과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r=0.12$ 의 관련성이 있었다. 아동의 우월감과는 약한 부(-)의 관계, 자신감과는 약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은 거부·제재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온정·수용 행동, 아동의 우월감과 자신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행동과는 $p<0.01$ 수준에서, 나머지 것들과는 모두 $p<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들에게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하고 거부·제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녀들 또한 학업성취지향성이 낮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빈곤층 가정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취업이 스트레스 지각과 부(-)적 관계에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시켜볼 때,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온정·수용 행동은 거부·제재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거부·제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은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쳐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 반면에 허용·방임 행동은 오직 거부·제재 행동과만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으며,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관련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행동은 아동의 우월감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지만 자신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이 처벌 위주일 때 학업성취가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동의 우월감과 자신감은 기대한대로 $r=0.53$ 의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설검증의 결과 분석

<가설 1-1> 빈곤층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적이거나 허용·방임적이기 보다는 거부·제재적일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빈곤층 어머니들이 거부·제재적인 양육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아동을 둔 관악구 기초보장 대상자들은 온정·수용적인 양육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 항목의 평균 점수가 3.33으로 가장 높고, 허

용·방임 평균점수가 가장 낮다. 이는 가난한 삶이면서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표 4-3> 부모의 양육 행동

	평균	표준편차	합
온정·수용 행동	3.33	0.45	379.73
허용·방임 행동	2.54	0.57	289.00
거부·제재 행동	2.64	0.55	301.00

<가설 1-2> 빈곤층 아동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빈곤층 아동들은 불리한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업성취지향성이 낮아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의 학업지향성 점수가 특별히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지만 자신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동이 평소 학습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4점 척도로 평균한 점수가 3.12 수준이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설 1-2>는 기각된다.

<표 4-4> 학업성취지향성 점수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소값	최대값
우월감	2.84	0.36	323.67	1.50	3.50
자신감	3.12	0.42	356.29	1.86	4.00
학업성취지향성	2.99	0.34	341.23	1.85	3.77

<가설 1-3>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t 테스트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5>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도 우울감, 자신감, 전체

<표 4-5>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지향성 차이 분석

집단구분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t값
우울감	남학생	57	2.83(0.33)	- 0.26
	여학생	57	2.85(0.38)	
자신감	남학생	57	3.14(0.43)	0.38
	여학생	57	3.11(0.41)	
평균	남학생	57	3.00(0.35)	0.13
	여학생	57	2.99(0.34)	

학업지향성의 F값이 각각 1.11, 1.10, 1.26으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3학년 이하의 저학년과 4학년 이상의 고학년으로 나누어 t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t값이 각각 -1.24, -0.16, -0.7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평균값이 약간 높았을 뿐이다. 이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학업성취지향성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2-1> 빈곤층 가정의 제반 특성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부(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자녀수가 많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가정 수입이 적을수록 아동은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표 4-2>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수는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각각 $r=0.01$, $r=0.1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과는 $r=-0.02$ 와 $r=-0.11$ 로 약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약한 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가정의 수입은 아동의 우월감 및 자신감과 각각 $r=-0.05$ 와 $r=-0.11$ 의 부적 관계가 있었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요약하면, 자녀수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학업성취지향성과 정의 관계를,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 수입은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가설 2-1>은 기각된다.

<가설 2-2> 빈곤층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부(負)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학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은 아동의 우월감 및 자신감과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r=-0.33$ 과 $r=-0.40$ 으로 모두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가설 2-3> 빈곤층 어머니의 온정·수용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정(正)인 관계를, 거부·제재행동과 허용·방임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부(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온정·수용 행동은 아동의 우월감 및 자신감과 각각 $r=0.33$ 과 $r=0.36$ 의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학업

성취지향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허용·방임 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관련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감과 상관계수는 -0.05이고 자신감과는 0.03이었다. 거부·제재 행동은 아동의 우월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주지만 자신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관계수는 우월감과 $r=-0.30$ 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자신감과는 $r=-0.13$ 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므로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가설 5-1> 사교육비 지출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정(正)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신감과 우월감이 높을 것이다.

사교육비는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지만 아동의 우월감과는 약한 부의 관계, 그리고 자신감과는 약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상관계수 값은 -0.09와 0.05이었다. 그러므로 <가설 5-1>은 기각된다.

<가설 5-2> 학원 수강을 포함한 과외 경험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은 정(正)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과외 여부와 학업성취지향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6>에 나타난 것처럼 t값이 너무 작아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t값이 음수라는 것은 학원 수강을 하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학업성취지향성 점수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5-2>는 기각된다.

<표 4-6> 학원 수강에 따른 학업성취지향성 차이 분석

집단구분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t값
우월감	미수강	54	2.83(0.38)	- 0.25
	수강	60	2.85(0.34)	
자신감	미수강	54	3.10(0.43)	- 0.53
	수강	60	3.15(0.41)	
평균	미수강	54	2.98(0.36)	- 0.47
	수강	60	3.01(0.32)	

<가설 3-1> 빈곤층의 생활환경과 스트레스의 강도는 정(正)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은 취업 여부 및 수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 여부와는 $r=-0.22$ 로 부적 관계를 가지며 수입과는 $r=0.18$ 로 정적인 관계가 있다. 이는 빈곤층 가정의 어려운 생활환경이 언제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참여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설 3-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가설 3-2>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거부·제재적인 양육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은 예상했던 대로 거부·제재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0.29$ 로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들에게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하고 거부·제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가설 3-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만족 여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과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t 테스트를 실시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두 집단을 더미 독립변수로 하고 양육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 역시 아무런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약 78%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거나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자료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결과로 추측된다. 그래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가설 3-4> 아동 양육행동이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학업성취지향성 점수가 성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차아가 없었다. 그러므로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3. 경로분석

<가설 4> 모든 요인들 중 모의 학력과 가정 수입이 아동의 학업 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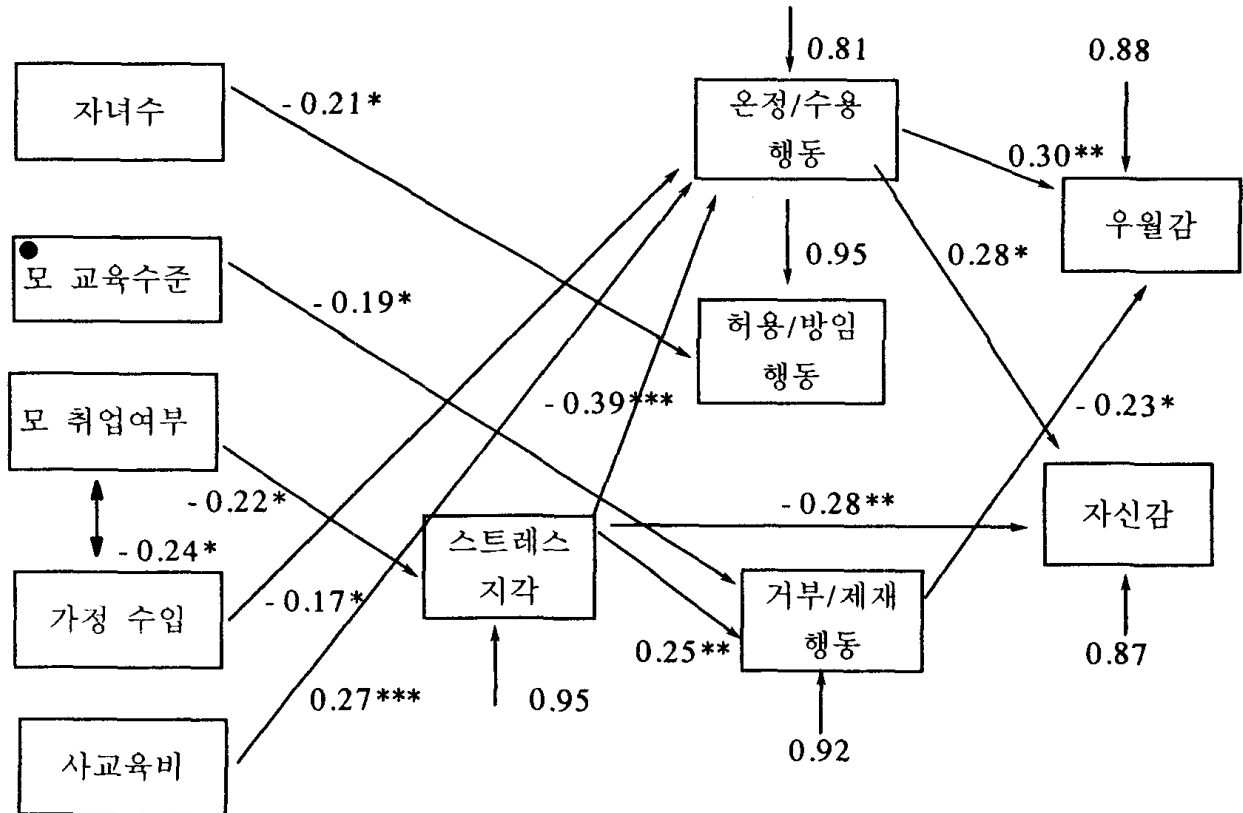
<가설 4-1> 모든 요인들 중 모의 학력과 가정 수입이 아동의 우월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가설 4-2> 모든 요인들 중 모의 학력과 가정 수입이 아동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빈곤층 가정의 특성요인,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 양육행동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환경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해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 방식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① 가정환경 특성 → 지각된 스트레스, ② 가정환경 특성 → 지각된 스트레스 → 부모의 양육행동, ③ 가정환경 특성 → 지각된 스트레스 → 부모 양육행동 →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 등 모두 3개의 경로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빈곤층 가정의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 양육행동 유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의 가설적 모형을 경로분석 하였다. <그림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한 경로와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대한 경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외부화살표는 잔차효과이며 $\sqrt{1-R^2}$ 으로 계산

* $p < 0.05$ ** $p < 0.01$ *** $p < 0.001$

1) 우월감에 대한 경로분석

빈곤층 가정의 특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우월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으로 얻어진 맨 오른쪽 회귀식에 의하면 우월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온정·수용행동과 거부·제재행동 뿐이다. 온정·수용행동은 우월감과 정적관계를 가진다($\beta=0.30$).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우월감 수준이 높아진다. 반면에 거부·제재 행동은 아동의 우월감과 부적관계를 가진다($\beta=-0.23$). 이는 어머니가 거부·제재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우월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독립변수들은 우월감과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 어머니의 취업, 교육수준, 가정 수입, 사교육비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우월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4-7>에 의하면, 아동의 우월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체 변량의 22%를 설명한다.

<표 4-7> 우월감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스트레스지각		온정·수용행동		허용·방임행동		거부·제재행동		우월감	
	b		b		b		b		b	
자녀수	-0.07	-0.09	-0.10	-0.13	-0.20	-0.21*	0.04	0.05	0.02	0.04
모의 교육수준	0.05	0.04	0.14	0.13+	-0.15	-0.12	-0.25	-0.19*	-0.07	-0.08
모의 취업여부	-0.24	-0.22*	0.16	0.16+	-0.02	-0.02	-0.13	-0.11	-0.07	-0.09
가정 수입	0.00	0.13	-0.01	-0.17*	0.00	0.01	0.00	0.04	0.00	0.07
사교육비	0.01	0.15	0.01	0.27***	0.01	0.17+	0.00	0.12	-0.00	-0.11
스트레스 지각			-0.35	-0.39***	0.06	0.06	0.28	0.25**	-0.11	-0.16
온정·수용 행동									0.24	0.30**
허용·방임 행동									0.03	0.05
거부·제재 행동									-0.15	-0.23*
F	2.39*		9.70****		1.78		3.04**		3.27***	
R	0.10		0.35		0.09		0.15		0.22	

+ $p<0.10$ * $p<0.05$ ** $p<0.01$ *** $p<0.001$ **** $p<0.0001$

빈곤층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스트레스 지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beta=-0.22$). 그리고 스트레스 지각은 다시 온정·수용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며($\beta=-0.39$), 거부·제재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진다($\beta=0.25$).

그런데 온정·수용행동은 우월감과 정적 관계를 갖고($\beta=0.30$), 거부·제재행동은 우월감과 부적관계를 가진다($\beta=-0.23$). 그러므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스트레스 지각, 온정·수용행동을 매개로 우월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한 어머니들이 직업을 갖지 못한 어머니들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고 온정·수용행동을 많이 하게 되어 아동의 우월감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은 취업한 어머니들은 일하지 않는 어머니들보다 거부·제재행동을 적게 하여 아동의 우월감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을 매개로 우월감에 긍정적인 간접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거부·제재행동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가진다($\beta=-0.19$). 그런데 거부·제재 행동이 우월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수준은 거부·제재행동을 매개로 우월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거부·제재행동을 적게 함으로써 아동의 우월감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온정·수용행동이나 허용·방임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에 의하면, 가정의 수입은 온정·수용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는다($\beta=-0.17$). 그리고 온정·수용행동이 다시 우월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의 수입은 온정·수용행동을 통해 우월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온정·수용행동을 적게 하여 아동의 우월감 수준을 낮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63만원으로 일반 국민들의 수입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표 4-2>에 의하면, 수입은 취업 여부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지만($r=-0.204$) 스트레스 지각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r=0.18$). 우리는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빈곤층 어머니들이 가정에 금전적 도움을 주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온정·수용행동을 더 적게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이 온정·수용행동을 더 적게 함으로써 아동의 우월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더 많은 수급자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우월감 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는 온정·수용행동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진다($\beta=0.27$). 그런데 온정·수용행동이 우월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교육비가 온정·수용행동을 매개로 우월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어머니일수록 온정·수용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아동의 우월감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가정 특성 요인 가운데 자녀수는 허용·방임행동과만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beta=-0.21$) 허용·방임행동이 우월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자녀수는 우월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8> 우월감 관련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

독립변수	상관관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교육수준	- 0.02		0.04	0.04
취업 유무	0.05		0.03	0.03
가정 수입	- 0.05		- 0.05	- 0.05
사교육비	- 0.09		0.08	0.08
스트레스 지각	- 0.33***		- 0.17	- 0.17
온정·수용 행동	0.33***	0.30**		0.30**
거부·제재 행동	- 0.30***	- 0.23*		- 0.23*

* $p<0.05$ ** $p<0.01$ *** $p<0.001$

<표 4-8>에는 우월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총 인과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우월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아동의 우월감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온정·수용 행동과 거부·제재행동이다. 두 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은 간접적 영향력을 포함시킨 총 인과적 효과를 비교할 때에도 다른 어떤 변수보다 더 크다. 스트레스 지각은 직접적인 영향력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우월감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수입이 아동의 우월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2) 자신감에 대한 경로분석

빈곤층 가정의 특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자신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으로 통제 얻은 맨 오른쪽 회귀식에 의하면 자신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과 온정·수용행동이다. 스트레스 지각은 자신감과 부정적 관계를 갖는다($\beta = -0.28$).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어머니를 가진 아동일수록 자신감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온정·수용행동은 자신감과 정적관계를 가진다($\beta = 0.28$).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자신감이 증가한다. 다른 독립변수들은 우월감과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 어머니의 취업 유무, 가정 수입, 사교육비 지출액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4-9>에 의하면, 아동의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한다.

<표 4-9>에 의하면, 빈곤층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자신감에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먼저 어머니의 취업은 스트레스 지각과 온정·수용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경로를 자세히 보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스트레스 지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beta = -0.22$).

<표 4-9> 자신감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스트레스지각		온정·수용행동		허용·방임행동		거부·제재행동		자신감	
	b		b		b		b		b	
자녀수	-0.07	-0.09	-0.10	-0.13	-0.20	-0.21*	0.04	0.05	0.06	0.09
모의 교육수준	0.05	0.04	0.14	0.13+	-0.15	-0.12	-0.25	-0.19*	-0.14	-0.14
모의 취업여부	-0.24	-0.22*	0.16	0.16+	-0.02	-0.02	-0.13	-0.11	-0.05	-0.05
가정 수입	0.00	0.13	-0.01	-0.17*	0.00	0.01	0.00	0.04	0.00	0.01
사교육비	0.01	0.15	0.01	0.27***	0.01	0.17+	0.00	0.12	0.00	0.02
스트레스 지각			-0.35	-0.39***	0.06	0.06	0.28	0.25**	-0.24	-0.28**
온정·수용 행동									0.26	0.28*
허용·방임 행동									0.04	0.05
거부·제재 행동									-0.04	-0.05
F	2.39*		9.70****		1.78		3.04**		3.65***	
R	0.10		0.35		0.09		0.15		0.24	

+ p<0.10 * p<0.05 ** p<0.01 *** p<0.001 **** p<0.0001

그리고 스트레스 지각은 다시 온정·수용행동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가지며($\beta=-0.39$), 거부·제재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진다($\beta=0.25$). 그러나 양육행동 중 자신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하위 요인은 온정·수용행동 차원뿐이다($\beta=0.28$). 그러므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스트레스 지각, 온정·수용행동을 매개로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한 어머니들이 직업을 갖지 못한 어머니들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고 온정·수용행동을 많이 하게 되어 아동의 자신감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로는 스트레스 지각을 매개로 아동의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지각은 양육행동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신감과 부적관계를 가진다($\beta=-0.28$). 이는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은 취업한 어머니들을 둔 아동이 일하지 않는 어머니들을 둔 아동보다 자신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스트레스 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자신감에 정적인 간접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지각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신감에 정적인 간접 영향을 미친다.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의 수입과 사교육비가 아동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로는 우월감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정의 수입은 온정·수용행동을 통해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온정·수용행동을 적게 하여 아동의 자신감 수준을 낮춘다는 의미이다. 사교육비 또한 온정·수용행동을 매개로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어머니일수록 온정·수용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아동의 자신감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가정 특성 요인 가운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자신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약한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p<0.13$).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신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더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자녀수는 허용·방임행동과만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beta=-0.21$) 허용·방임행동이 자신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자녀수는 자신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10> 자신감 관련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

독립변수	상관관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모의 교육수준	- 0.11	- 0.14		- 0.14 +
취업 유무	0.10		0.08	0.08
가정 수입	- 0.11		- 0.05	- 0.05
사교육비	0.05		0.08	0.08
스트레스 지각	- 0.40***	- 0.28*	- 0.11	- 0.39*
온정·수용 행동	0.36***	0.28*		0.28*

+ $p<0.13$ * $p<0.05$ ** $p<0.01$ *** $p<0.001$

<표 4-10>에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총 인과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아동의 자신감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스트레스 지각과 온정·수용행동이다. 두 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은 간접적 영향력을 포

함시킨 총 인과적 효과를 비교할 때에도 다른 어떤 변수보다 더 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직접적인 영향력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아동의 자신감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수입이 아동의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제 5 장 결론 과 논의

본 연구는 빈곤층 가정의 특성,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이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을 구성하는 두 차원인 우월감과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빈곤층 가정의 특성,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수준, 양육행동 방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114명과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온정·수용행동, 그리고 거부·제재행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거부·제재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우월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스트레스 지각 및 아동 양육행동 방식을 매개하여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 두 차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가정의 수입은 어머니의 온정·수용행동 양육 방식을 통해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사교육비 지출은 어머니의 온정·수용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자신감과 우월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빈곤층 가정의 특성,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관악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비교적 젊은층이었다. 아동들의 분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85.01%로 고학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명의 자녀수를 둔 가정이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어머니들의 99%가 고졸 이하로 나

이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았다. 가정의 해체도 심각하여 이혼한 여성이 39.47%를 차지했으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52.63%에 지나지 않았다. 거주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약 63만원 정도이었다. 월 평균 수입이 51-70만원인 가정이 6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거의 20%나 되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71.93%가 취업을 하고 있었다. 취업한 여성의 거의 모두가 식당일, 파출부, 단순판매직, 노점상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교육 급여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사람이 각각 77.19%와 89.48%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낮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 열풍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52.63%로 받지 않고 있는 아동보다 많았다. 과외를 하는 가정들은 한달 평균 16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 전체 가정의 평균 월수입이 약 63만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액수이다. 월 평균 16만원 이상을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이 과외를 하고 있는 가정의 56.67%를 차지했으며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정도 26.67%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총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원 수강을 하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학업성취지향성 점수의 평균이 약간 높았지만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우리 사회의 정보화의 정도를 반영하듯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정의 정보화율이 매우 높았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97.37%로 거의 전부였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도 88.60%이었다. 이는 물론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컴퓨터를 하나의 학습도구로 여기는 어린 학생들이 연구 대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높은 정보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인 것 같다.

빈곤층 어머니들이 거부·제재적인 양육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온정·수용적인 양육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 항목의 평균 점수가 3.33으로 가장 높고, 허용·방임 평균점수가 2.54로 가장 낮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만족 여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빈곤층 아동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의 학업성취지향성 점수가 특별히 낮지는 않았다. 아동이 평소 학습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4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가 2.99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학업성취지향성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2. 빈곤층 가정의 특성,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 학업성취지향성과의 관계

자녀수는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동들을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이 거부·제재적인 경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가정 수입, 스트레스 지각, 거부·제재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온정·수용 행동과는 정적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가정 수입이 적을수록 취업하는 어머니가 많고, 취업한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아동들에게 거부·제재적인 양육방식도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수입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과는 정적 관계를, 그리고 온정·수용 행동과는 부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수입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고, 아동에게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취업과 관련시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빈곤층 여성들이 가정 내외로부터 다양한 심적 압박을 받아 아동들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사교육비는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에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어머니일수록 애정 있는 자녀 양육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자녀수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학업성취지향성과 정의 관계를,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 수입은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가정 수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은 거부·제재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온정·수용 행동, 아동의 우월감 및 자신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들에게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반면 거부·제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녀들 또한 학업성취지향성이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빈곤층 가정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온정·수용 행동은 거부·제재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수용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거부·제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은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쳐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 반면에 허용·방임 행동은 오직 거부·제재 행동과만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고며,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는 관련성이 약했다. 거부·제재 행동은 아동의 우월감 및 자신감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이 처벌 위주일 때 학업성취가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가정 특성,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 변수들에 관한 경로분석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변수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 틀을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모델, 빈곤문화 이론, 아동 양

육행동 이론, 그리고 스트레스 이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증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가지고 그 분석 틀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설정된 이론적 모형에 의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은 아동의 자신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우울감에는 양육행동 방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 어머니들이 궁핍한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이 아동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을 저하시켜 아동의 우울감 수준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을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반응인 양육행동과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실증자료에 의해 대체로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빈곤 아동의 자신감과 우울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빈곤층 아동들의 학업성취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곤한 가정환경이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가난으로 인해 생성되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스트레스와 갖는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의 모색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수입이나 사교육비 액수,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가 심층면접이나 국가기관 등의 실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대상자의 자기 보고에 의해 수집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실제 사실과 행동을 말하고 있는 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변인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 국가기관에 의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빈곤층 가정 아동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연구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빈곤 가정을, 대상 아동은 유치원생과 중고등학생을, 계층별로는 중류층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층 가족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하게 살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가정과 아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가정 특성,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빈곤층 아동의 우울감과 자신감 형성에 관한 경로설명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업 성취지향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된 다른 요인들, 즉 아동의 개인 특성, 또래집단, 교실환경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사교육 열풍이 중상류층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사교육 실시 여부와 사교육비 액수가 빈곤층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사했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 형태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가정의 정확한 사교육비 액수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받는 과외의 내용, 과외로 인한 어머니와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 어머니의 교육관과 과외를 시키는 이유,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 지각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런 스트레스의 원천과 그것을 완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빈곤층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남편이나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원 여부, 가난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학업성취지향성에 관한 본 연구의 발견들은 빈곤 가정 아동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본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이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은 아동의 자신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우월감에는 양육행동 방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빈곤층 어머니들이 궁핍한 생활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이 아동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을 저하시켜 아동의 우월감 수준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빈곤 아동의 자신감과 우월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빈곤한 가정환경이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가난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층 어머니가 경험하는 경제적 결핍과 불확실성,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자녀의 교육문제, 열악한 주거 환경, 낮은 사회적 위신과 고립, 빈번한 부부갈등이나 이혼 등을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스트레스 지각 및 거부·제재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그리고 온정·수요 행동과는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취업한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아동들에게 거부·제재적인 양육방식도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취업과 관련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빈곤층 여성들이 가정 내외로부터 다양한 심적 압박을 받아 아동들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빈곤층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으로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킬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곤층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 알선, 국가나 기업에 의한 무료 보육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

셋째, 본 연구는 사교육비 부담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는 아동보다 많았고 과외를 하는 가정들은 한달 평균 16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 전체 가정의 평균 월수입이 약 63만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액수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총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 후 수업이나 공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빈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빈곤층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과 관련변인들을 탐색하여 가정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월감과 자신감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극빈층의 자녀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전무했다. 본 연구가 극빈층 가정의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지각, 양육행동, 아동의 학업성취지향성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 사교육비 지출,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빈곤층 가족의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원 프로그램 작성에 유용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정구(1986),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희돈(1988),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유미(1994), 「서울시내 일부 저소득층 유아원 어린이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석사 학위 논문
-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공은배·한만길·이혜영(1984), 『학교·학급의 적정규모』, 한국교육개발원.
- 구병두(1989),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Meta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현수(1992), 「빈곤 극복을 위한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 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문.
- 김경근(1999),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3): 1-23.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희·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규(1993), 「한국의 교육과 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기승(2002), “국제비교로 본 교육투자 효율성”, <LG주간경제>, 2002/2/13. 22-25.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기태 외(1998a),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경제·교육·문화 및 전달체계에 관한 조사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부산대학교, pp. 251-288.
- 김기태 외(1998b),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정서·심리 및 사회관계에 관한 조사 연

- 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부산대학교, pp. 289-316.
- 김동춘 외(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남출판.
- 김미곤 외(1995),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2000), 「학교실패 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병성·라정·이혜영(1983), 『도농학교의 사회적 체제 비교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수현(2001),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사업 성과와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의 평가와 전망』,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개교3주년기념 심포지엄자료집.
- 김수현(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신일(2001),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모(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모(1992),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화(2002), “교육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7: 82-95.
- 김영화·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 155-172.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왕근(1988),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원경·권희경·전제아(2001), “부모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심리적 제반 변인이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87-105.
-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재희·주은선(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1-18.
- 김점성(1992),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수준과 생활양식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정자·변화순·윤영숙(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현(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Latchkey child)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이성식(1996), “계층에 따른 학업성적과 비행간의 관계 - 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학,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 나남출판.
- 김태성·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노명희·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류정순(2001), “차상위 계층의 생활실태와 기초생활보장 수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마르틴, 한스 피터 · 하랄드 슈만(1997),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강수돌 역. 영림카디널.
-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 제1회 포럼 자료집.
- 문진영(200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와 향후 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의 평가와 전망』,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개교3주년기념 심포지엄자료집.
- 문창호(1975), 「학업성적과 가정환경 및 자아개념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명애(1981), 「학년별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계층 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문수 외(1998), 『저소득층지역 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서울: 집문당.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 자녀 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 문제』, pp. 55-77. 서울: 하우.
- 박수경(1991),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욕구 측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수경(199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 행동, 형제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박찬용 외(2000),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철연(1986),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 박혜인(1994), “대구지역 저소득층 기혼 여성의 일과 가족 생활 실태 파악 및 가족복지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179-191.
- 방하남·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배종웅(1993),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사기대 및 학업성취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변용찬(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아동권리연구』 3: 43-68.
- 보건복지부(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성과와 향후과제」.
- 보건복지부(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2),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요현황 분석」.
- 설동훈(1994). “한국 노동자들의 세대간 이동, 1978-1989”,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아카데미.
- 송경원(2001), “한국의 계급구조와 교육체계”, 『진보평론』 10: 31-51.
- 송태정(2002), “차별화되는 시장, 대중화되는 시장”, <LG주간경제>, 2002/7/3. 13-17.
-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3-50.
- 신영전(2000), “정부입법 의료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월간복지동향』, 제24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나남출판.

안병철·임인숙·정기선·이장원(2001), 『경제 위기와 가족: 경제·가족·가부장제·정신건강 그리고 가족해체』, 생각의 나무.

안치민(1992). “한국사회와 계급구조화 연구”, 『한국사회학』 26(2): 59-81.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어주경·정문자(2001),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 21-40.

엄규숙·김연명·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오선영·이숙(1994),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 실태 및 탁아서비스 실태에 관한 요구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2).

오성삼·구병두(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 99-122.

옥경희·김미해·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 91-111.

옥선화·정민자(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 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48-61.

유팔무(1981), 「세대간의 사회이동과 교육기회 불평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호식(1995), 「한국 공적 부조의 충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준태(1992), 「도시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윤정혜·이기춘(1994), “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 『대한가정학회지』 32(3).

이민숙(2002), “교실-수업과 교육 불평등”, 『교육비평』 7: 110-125.

이병희·정재호(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봄): 128-150.

이상백·김채운(1966), 『한국사회계층연구』, 민조사.

이선우(2001),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계측과 장애인수당”, 한국장애인총연맹, 장애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이성우(1999),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서울행정학회』.

이성우·김재필(1998), “IMF 관리체제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그 의미”, 『한국

소비자보호원」.

이순형·신양재·김영주(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114-127.

이정수(1989),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적·지능·자아 개념 및 일상생활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수(1993), 『한국 빈곤 가족 문제에 대한 가족치료 접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이해명(1998),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결정구조』, 교육과학사.

이효재·이동원(1981), 『도시빈곤가족문제 및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자원개발소.

장미경(2000),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간의 관계 - 비교문화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장미경(2001),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간의 관계: 비교문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33-151.

장상수(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전성일(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장애에서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정신의학』 7(1): 34-43.

전행일·조운희(1990), “집단경험이 빈곤·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8: 3-24.

정계숙·양안나(1990), “저소득층 아동의 탁아원 경험과 가정환경이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28: 145-159.

정문자·이미리·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정영순·이명홍(1989), “도시빈곤 가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겨울호): 35-63.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 정현희·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4: 379-390.
-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존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45-68.
- 조은 외(2000),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정문·장상희(2001),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1): 41-56.
- 초스도프스키, 미셸(1998),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역. 당대.
- 최경석 외(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 최선태(2002),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 고전음악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최은영(1994),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통계청(2002),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
- 한국여성개발원(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1990 연구보고서 200-1.
- 한충효(1984), 「가정의 환경적 과정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 선(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쟁점과 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 허 선(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사회복지정책』 제10집.
- 허 선(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월간복지동향』, 제21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나남출판.

허 선(2000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 기초법 연기론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도시와빈곤』 제44호.

황창순 외(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황진수(1999),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부양』, 한성대 동아시아 연구소.

황진수(2000), 『빈곤계층 노인을 위한 민간지원 연계방안』, 한성대 사회과학연구소.

황진수(2002), 『학교교육에서의 효교육 증진 방안』,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세미나 자료집.

홍두승 · 구해근(1993), 『사회계층 · 계급론』, 다산출판사.

Abidin, R. R. (1986).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stone, N. M. & McLanahan, S.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Adler, D. L., Lippit, R. & White, R. K. (1939). "An Experiment with Young People under Democratic, Autocratic, and Laissez-faire Atmospher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Social W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drian, C., & Hammen. C. (1993). "Stress Exposure and Stress Generation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354-359.

Alexander, L. & Simons, J. (1975). 『The Determinants of School Achiev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Baldwin, A. L. (1948). "Socialization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19: 127-136.

Ballantine, J. H. (1997). 『The Sociology of Education: A Systemetic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7.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4: 43-88.
- Baumrind, D. (1968). "Authoritarian vs.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Adolescence』 3: 255-272.
- Baumrind, D. (1970). "Socialization and Instrument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26: 104-119.
- Baumrind, D. (1971). "Harmonious Parent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1): 99-102.
- Baumrind, D. (1972).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ization Effects on Black Children: Some Black-White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43: 261-267.
- Baumrind, D. (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 239-276.
- Baumrind, D. (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349-378).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aumrind D. & Black, A.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 Bayer, C. & Cegala, D. (1992). "Trait Verbal Aggressiveness and Argumentativeness: Relations with Parenting Style",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6: 301-310.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 New York: NBER, Columbia Univ. Press.
- Beckwith, L. & Cohen, S. (1980). "Social Interaction with the Parent during Infancy and Later Intellectual Competence in Children Born Pattern". In A. S. Honig (ed.), 『Early Parenting and Later Child Achievement』 . New York: Gordon & Breach Science Publication.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Belle, D. (1990). "Poverty and Women'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5: 385-389.
- Bernstein, B. (1973). *『Class, Codes and Contro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eyer, S. (1995).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enting Styles as Mediating Variable", *『Development Review』* 15: 212-253.
- Bloom, B. (1981), *『All Our Learning: A Primary for Parents, Teachers and Other Educator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Bornstein, R. (1992). "The Dependent Personality: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12(1): 3-23.
- Bornstein, M. H., Tal, J., & Tamis-Lemonda, C. (1991). "Parent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In M. H. Bornstein(Ed.),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ourdieu, P. (1984). *『Distinctions: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 Passeron, J.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Sage Publication.
-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oyes, M. & Allen, S. (1993). "Style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Moral Reasoning in 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39(4): 551-570.
- Brody, G. H., & Shaffer, D. R. (1982). "Contributions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Bronfenbrenner, U. (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Hinsdale, IL.: Dryden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Bronstein, P. (1994). "Patterns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Mexican Famil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3): 423-446.
- Brophy, J. & Good, T. (1974).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 Holt, Reinhart and Winston.
- Brown, B., Mounts, N., Lamborn, S., & Steinberg, L.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ochran, R.,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leman, J. S., Campbell, E. Q., Hobson, C. J., McPartland, J. M., Mood, A., Weinfeld, F. D., & York, R. L.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llins, R. (1971). "Functional and Conflict Theories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1002-1019.
- Collins, R. (1979). 『Credential Society』 , New York: Academic Press.
- Conger, R., Conger, K., Elder, G., Lorenze, F., Simons, R., & Whitbeck, L.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Conger, K., Elder, G., Lorenze, F., Simons, R., & Whitbeck, L.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06-219.

- Conger, R., Elder, G., Lorenze, F., Conger, K., Simons, R., Whitbeck, L., Huck, S., & Melby, J.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643-656.
- Conger, R., Lorenze, F., Elder, G., Melby, J., Simons, R., & Conger, K. (1991). "A Process Model of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Early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4): 430-449.
- Cox, A. D., Puckering, C., Pound, A., & Mills, M. (1987).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 917-928.
- Coyne, J. C., Kahn, & Gotlib, I. H. (1987). "Depression". In T. Jacobs (Ed.), *Family Interaction and Psychopathology* (pp. 509-533). New York: Plenum.
- Crnic, K. & Greenberg, M.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emo, D. H., & Savin-Williams, R. C. (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Rosenberg and Pealin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763-774.
- Dave, R. H. (1963).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5.
- Doeringer, P. B. & Piore, M. (1971). *Internatio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ss: Heath.
- Dohrenwend, B. (1970). "Social Class and Stressful Events". In E. Hare and J. Wing (Eds.) *Psychiatric Epidemiology* (pp. 313-319). New York: Oxford Univ. Press.
- Dornbusch, S. (1987). "The Relation of Parental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 and Adjustment into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Elder, G.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 Liker, J., & Cross, C. (1984). "Parent 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ates & O. Brim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109-158). Orlando, FL: Academic Press.
- Elder, G., Nguyen, T., &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Epstein, J. L. (1987). "Toward a Theory of Family-school Connections: Teachers Practices and Parent Involvement". In M. T. Hallian, D. M. Klein, & J. Glass(Eds), 『Changing in Societal Institutions』 . New York: Plenum.
- Fehrmann, P. G., Keith, T. Z., & Reimers, T. M. (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6: 330-337.
- Ge, X., Conger, R., Lorenz, F., & Simons, R. (1994). "Parents' Stress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Mediating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8-44.
- Gelfand, D. M., Teti, D. M., & Radin Fox, C. E. (1992). "Sources of Parenting Stress for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iatry』 21: 262-272.
- Gelambos, N. I., & Garbarono, J. (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Child & Youth Quarterly』 18: 131-140.
- Gecas, V. (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 Family」. New York: Free Press.
- Giddens, A. (1997).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Greenberger, E. & Goldberg, W. (1989).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22-35.
- Hagan, J., Macmillan R. & Wheaton B. (1996). "New Kid in Town: Social Capital and the Life Course Effects of Family Migration in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368-385.
- Hammen, C. (Ed.). (1991). 「Depression Runs in Families: The Social Context of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New York: Springer-Verlag New York Inc.
- Hammen, C., Adrian, C., Gordon, D., Burge, D., Jaenicke, C., & Hiroto, D. (1987).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Maternal Strain and Symptom Predictors of Dysfunc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90-198.
- Hannan, K. L. & Eggenbean, D. J. (1993). 「Stressful Events and Changes in the Home Environment」. Presented at the bi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March 1993.
- Hashima, P. & Amato, P. (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Hauser, R. M., Sewell, W. H., & Alwin, D. F. (1974). "High School Effects on Achievement". In R. M. Hauser & W. H. Sewell(Eds.),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Academic Press.
- Hein, C. & Lewko, J. (1994).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Style: A Study of High Performing Scienc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9(2): 262-281.
- Herrnstein, R. J. & Murray, C. (1994). 「The Bell Curve: Intelligence and Class Structure in American Life」. New York: Free Press.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9). "Family Interaction and the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Following Divorce", In V. Vaughn & T. Brazelton (Eds.), 「The Family: Setting Priorities」. New York: Science and Medicine.

- Hill, N.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ing Style: A Preliminary Study of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1: 408-423.
- Hirsch, B., & Reischl, T. (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a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72-281.
- Hodges, W. F., Buschbaum, H. K., & Tierney, C. W. (1983).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in Preschool Children of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611-617.
- Ho Sui-Chu, E. & Willms, J. D.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 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 126-141.
- Hodges, W. F., Tierney, C. W. & Buschbaum, H. K. (1984). "The Cumulative Effects of Stress on Preschool Children i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7: 43-58.
- 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1986). 『The Junior School Project』. London: ILEA Research and Statistical Branch.
- Jackson, C., Bee-Gates, D. & Henrikson, L. (1994). "Authoritative Parenting, Child Competencies, and Initiation of Cigarette Smoking",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1): 103-116.
- Jencks, C., Smith, M., Acland, H., Bane, M. J., Chen, D., Gintis, H., Heyns, B., & Michelson, S. (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Jensen, A. R. (1980). 『Bias in Mental Testing』, New York: Free Press.
- Kazdin, A. E. (1987).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 Sage.
- Keddie, N. (1971). "Classroom Knowledge", In M. F. D. Yojng(ed.), 『Knowledge and Control』 (pp. 133-160). London: Collier Macmillan.
- Kochanska, G. (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

- Kohen, D. (1997). 'Parenting Behaviors: Associated Characteristics and Child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7).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9809732.
- Kohn, M.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 Dorsey.
- Kohn, M. (1979). "The Effect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Practices". In D. Reiss & H. A. Hoffman (Eds.), 'The American Family' (pp. 45-68). New York: Plenum.
- Kohn, M. & Schooler, C. (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 Kohn, M., Slomczynski, K., & Schoenbach, C. (1986).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Values in the Family." 'Sociological Forum' 1: 73-101.
- Krevans, J. & Gibbs, J. (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3263-3277.
- Kurdek, L. & Fine,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Young Adolescents' Appraisals of Family Climate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14(2): 279-290.
- Lamborn, S., Mounts, N., Steinberg, L., & Dornbusch, S.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areau, A. & Horat, E. (1999). "Moments of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Race, Class, and Cultural Capital in Family-school Relationships", 'Sociology of Education' 72: 37-53.
- Lesser, H. (1985). "The Soci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in Children", 'The High School Journal' , 162-166.
- Lewin, K., Lippitt, R., & White, R. K. (1939). "Patterns of Aggressive Behavior in Experimentally Created 'Social Clim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71-299.

Lewis, O. (1959). *Five Families*. New York: Basic Books.

Lewis, O. (1966). "The Culture of Poverty", *Scientific America* 4: 19-25.

Liem, R. & Liem, J. (1978). "Social Class and Mental Illness Reconsidered: The Role of Economic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39-156.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Makosky, V. (1982). "Sources of Stress: Events or Conditions?" In D. Belle (Ed.), *Lives is Stress: Women and Depression*. Beverly Hills, CA: Sage.

McLeod, J. & Shanahan, M.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McLoyd, V. (1989).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a Changing Economy: The Effects of Parental Job and Income Loss o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4: 293-302.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McLoyd, V.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McLoyd, V.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 105-1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Loyd, V., Jayaratne, T.,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eyers, S. (1999). "Mothering in Context: Ecological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Merril-Palmer Quarterly』 45: 332-357.
- Milne, A. M., Myers, D. E., Rosenthal, A. S., & Ginsburg, A. (1986). "Single Parents, Working Mothers, and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School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9: 125-139.
- Moss, E., Gosselin, C., Parent, S., Rousseau, D., & Dumont, M. (1997). "Attachment and Joint Problem-solving Experience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Social Development』 6: 1-17.
- Murray, C. (1984).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 New York: Basic Books.
- Mussen, P., Harris, S., Rutherford, E., & Keasey, C. (1970). "Honesty and Altruism among Pre-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 169-194.
- Oatley, K. & Bolton, W. (1985). "Social-cognitive Theory of Depression in Reaction to Life Events", 『Psychological Review』 92: 372-388.
- Parcel, T. & Menaghan, E. (1994). "Early Parental Work, Family Social Capital, and Early Childhood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972-1009.
- Pearlin & Kohn (1966). "Social Class, Occupation, and Parent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1: 466-479.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70).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Pittman, J. F., Wright, C. A., & Lloyd, S. A. (1989). "Predicting Parenting Difficulty", 『Journal of Family Issues』 10: 267-286.
- Por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Pratt, M., Green, D., MacVicar, J. & Boutrogianni, M. (1992). "The Mathematical Parent: Parental Scaffolding, Parental Style, and Learning Outcomes in

- Long-division Mathematics Homework",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 17-34.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Quamma, J., & Greenberg, M. (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Ra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eed, H. B. (1961). "Teacher Variables of Warmth, Demand and Utiliz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Related to Pupil, Science Interests",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27: 205-229.
- Rist, R. (1970). "Social Class and Teacher Expectations: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Ghetto Education", 『Harvard Education Review』 40: 411-451.
- Roggman, L. A., Moe, S. T., & Hart, A. D. (1993). 『Parenting Stress in Head Start Parents: Correlates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Presented at the bi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March 1993.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senthal, R. & Jacobson, L. (1966). "Teachers' Expectations: Determinants of Pupils' IQ Gains", 『Psychological Reports』 19: 115-118.
- Rueter, M. A., & Conger, R. D. (1998).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Problem-solv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70-1482.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Psychological Psychiatry』 22: 323-356.
- Sameroff, A. & Seifer, R. (1983). "Impact of Parent Psychopathology: Diagnosis,

- Severity, or Social Status Effect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 236-249.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285-302.
- Sandler, I. N. & Block, M. (1979). "Life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7: 425-440.
- Sarason, I. G., Johnson, J. H., & Siegel, J. M.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Schopler, J., & Keating, J. E. (1979). "Human Crowding and Personal Control: An Integration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6.
- Schultz, T. W. (1963).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ott, W. A., Scott, R., & McCabe, M. (1991).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rsonality: A Cross-cultural, Cross-source Comparis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20.
- Scott-Little, M. C. & Holloway, S. D. (1992). "Child Care Provider's Reasoning about Misbehaviors: Relation to Classroom Control Strategies and Professional Train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595-606.
- Sears, R., Maccoby, 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Lewisville, NC: Kaplan.
- Shaffer, D. R. (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Simons, R., Lorenz, F., Wu, C., & Conger, R.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Steinberg, L., Mounts, N., Lamborn, S., & Dornbush, S. (1991).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ous Ecological Nich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9-36.
- Steinberg, L., Dornbush, S., & Brown, B. (1992).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

- Achieve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7: 723-729.
- Sterling, S., Cowen, E. L., Weissberg, R. P., Lotyczewski, B., & Boike, M. (1985). "Recent Stressful Life Events and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87-98.
- Susman, E., Trickett, P., Iannotti, R., Hollenbeck, B. & Zahn-Waxler, C. (1985). "Child-rearing Patterns in Depressed, Abusive, and Normal Moth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2): 237-251.
- Symonds, P. M.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Tauman, P. & Wales, Y. J. (1973). "Higher Education, Mental Ability, and Screen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41-54.
- Taylor, R., Casten, R., & Flickinger, S. (1993). "Influence of Kinship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xperienc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frican-American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82-388.
- Teti, D. M., Gelfand, D. M., Messinger, D. S., & Isabella, R. (1995). "Maternal Depression and the Quality of Early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Infant,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64-376.
- The Urban Institute(1999). 『Snapshots of America's Families: A View of the Nation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Washington, D.C.: Author.
- Thurow, Lester. (1975).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Vandell, D. L. & Ramanan, J. (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37-643.
- Ventura, J. N. (1987). "The Stressors of Parenthood Reexamined", 『Family Relations』 36: 26-29.
- Wallerstein, J. (1987). "Children of Divorce: Report of a Ten-year Follow-up of Early Latency-ag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99-211.

- Wallerstein, J. & Kelly, J. B. (1975).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Experiences of the Preschool Child",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4: 600-616.
- Watson, P., Little, T. & Biderman, M. (1992). "Narcissism and Parenting Styles", 『Psychoanalytic Psychology』 9(2): 231-234.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 - 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Werner, E. (1989). "High 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72-81.
- Werner, E. & Smith R.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 New York: McGraw-Hill.
- Wertlieb, D., Weigel, C., & Feldstein, M. (198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204-211.
- Whipple, E. & Webster-Stratton, C. (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and Neglect』 15: 279-291.
- White, K. R. (1982).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Bulletin』 913: 461-481.
- Woods, M. B. (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 14-25.
- World Bank. (2001).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Attacking Poverty』 .
- Wright, E. & Perrone, L. (1977), "Marxist Class Categories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32-55.

설 문 지

조 사 일 자 2002년 8월 일

자 료 번 호 _____

조 사 자 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태도와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의 학업성취 지향성을 조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은 자녀 교육에 관한 어머니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순수 학술연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응답내용은 컴퓨터에 의해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는 경우 애써 대답한 질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택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02년 8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차 정희

〈어머니용〉

*다음 질문을 읽으시고 귀하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O표 또는 간단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만 ()세 생년월일:
2. 귀하의 자녀수는? ()남 ()녀
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무엇입니까?
- 1) 기혼 2) 사별 3)이혼 4)별거 5) 기타 ()

4. 귀하와 아버님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어머님	아버님
1) 무학	()	()
2)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
3)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	()
4)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
5) 대학교 (전문대 포함) 중퇴 혹은 졸업	()	()
6) 대학원 이상	()	()

5.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떠합니까?
1) 자가 2) 전세 3)월세 4)친척집 5) 기타 ()
6. 귀하와 아버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어머니 () 아버지 ()
7. 귀댁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원)

8. 귀댁이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총 얼마입니까? (원)

9. 귀댁은 교육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원)

10. 귀하는 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1) 국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4년제 대학졸 6) 대학원

11. 자녀가 수강하고 있는 학원이나 개인지도의 종류는 어떠한가요? 모두 표시해주세요.

1) 아무런 사교육도 받지 않는다

2) 학과(국어, 영어, 수학 등) 관련 과외 및 학원

3) 속셈, 주산 및 암산

4) 컴퓨터

5) 음악관련(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

6) 체육관련(태권도, 수영, 복싱, 체조 등)

7) 미술관련(미술, 서예 등)

8) 직업관련(타자, 부기, 미용, 간호, 자동차정비 등)

9) 동네 공부방

10) 기타 _____ (무용, 글짓기, 바둑, 옹변 등)

12.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개인지도를 받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미활동지도

2) 학교 학습 보충

3) 인성지도

4) 체력단련

5) 미래의 직업활동 준비

6) 기타 _____

13. 귀댁의 한달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원)

14. 귀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5. 귀댁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있다 2) 아니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7. 교육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다음은 어머니께서 지난 한달 동안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을 읽으시고 어머니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X표를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당황한 적이 있다					
2.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					
3. 나는 짜증(신경질)을 자주 낸다					
4.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한다.					
5.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고 있다					
6.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					
7. 나는 일상생활에서 노여움을 통제할 수 있다					
8.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					
9. 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분노한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극복해 낼 수 없을 것 같다					

* 다음의 항목은 어머니께서 평소 자녀와 어떻게 지내는지를 진술한 문장들입니다.
어머니의 평소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X를 해 주십시오.

문항	아주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아주 다르다
1.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거의 무엇이든지 다 하게 해준다.				
2. 아이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말을 하면 함께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3.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한다는 말을 한다.				
4. 아이가 가끔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5.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낼 때가 있다.				
6. 어떤 것이든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한다.				
7. 아이가 실수를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편잔을 주게 된다.				
8. 될 수 있으면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내버려 둔다.				
9.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엄마가 하라면 해”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려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				
10. 아이에 대한 나의 불만을 자주 나타내는 편이다.				
11.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해 버릴 때가 많다.				
12.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제나 잘 알고 있다.				
13. 아이가 기뻐할 일들을 생각했다가 그렇게 해 주곤 한다.				
14. “너 때문에 내가 힘이들어”라고 아이에게 말한다.				
15. 하면 안되는 일도 아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놓아 둔다.				
16.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면 혹사라도 잘못될까봐 자세하게 이것저것 충고의 지시를 한다.				
17. 아이가 한 일이 대견스러워 칭찬을 해 주는 때가 많다.				
18. 여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문 항	아주 비슷하다	대체로 비슷하다	별로 비슷하지 않다	아주 다르다
19. 아이를 보면 답답해서 바보같다는 말을 하게 된다.				
20. 어떤 규칙이라도 꼭 지키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21. 아이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22. 아이를 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야단치는 경우가 있다.				
23. 아이가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24. 늘 웃는 얼굴로 아이를 대해 준다.				
25. 아이가 조르는 것은 대체로 다 사준다.				
26.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나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27. 아이가 도움을 꼭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도와 준다.				
28.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가 잘못을 해도 야단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				
29. 가능한 한 아이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 주려고 노력한다.				
30. 아이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하면 보기도 싫다고 말하게 된다.				
31.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32. 아이가 무엇을 하든 도대체 상관을 안하는 편이다.				
33. 아이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34. 어른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려 하면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쳐준다.				
35. 아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해 준다.				
36. 아이가 할 것을 안하고 딴 짓을 하고 있어도 야단을 치기가 어렵다.				
37. 하라고 했던 일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끝까지 시키지는 않는다.				

〈아동용〉

* ()학교 ()학년 * 성별 (남자 여자)

*다음은 아동의 학습능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은 문장들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평소 생각과 같은 것에 X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아주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				
2.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성적에는 자신이 있다.				
3.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재주를 타고 난 것 같다.				
4.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느낀다.				
5. 나는 상급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6. 나는 공부로 성공하기는 틀린 것 같다.				
7. 나도 이만하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공부를 잘 할 자신이 없다.				
9.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10. 나는 앞으로의 시험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11. 나는 공부를 못해서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				
12. 나는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쉽게, 빨리 배우는 편이다.				
13.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14. 나는 시험이라면 자신이 없다.				
15. 나는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of Poverty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 Focused on the Low-Income Family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Cha, Jung Hee

Major in Public Polic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an 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explain poverty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Those factors considered a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oor family, stress perceived by the mother,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 In this study, it is hypothesized that characteristics of poor family, stress perceived by the mother, and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 may have direct and/or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A total of 114 poor mothers with a chil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in Seoul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from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methods such a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by using SAS program. Path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variables influenc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of poverty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stress perception, warmth-acceptance child rearing behavior, and rejection-restriction child rearing behavior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achievement orientation. The permissive-nonintervention style of child rearing was not significant.

Second, among characteristics of the poor family, the level of education of poor mothers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sense of superiority through rejection-restriction child rearing behavior. Mothers' state of employ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dimension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via stress perception and child rearing behavior. The family income had a negative impact via warmth-acceptance child rearing behavior on the children's education.

Third, poor mothers experienced a moderate level of stress which is strongly related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The level of stress directly affected children's sense of confidence. Stress was also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s on both dimension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through child rearing behavior.

Fourth,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ivate lesson is an universal phenomenon in Korea. Even the poorest families were spending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o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amount of income spent on the private lesson affected through the warmth-acceptance child rearing behavior on both dimension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confirm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play important roles in determining indirectly th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with the mediating role of stress perception and child rearing behavior of mothers in poverty. Therefore,

to enhance the poverty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designed to provide poor families with the support and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